

연예인 뺨치는 ‘임플로이언서’… “매출·주가 올리는 효자”

<직원(임플로이)+인플루언서>

스페셜 리포트

임직원이 직접 자사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임플로이언서’가 유통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임플로이언서는 직원을 의미하는 ‘임플로이(employee)’와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다. 임직원이 직접 소개한 제품은 매출 확대에 곧바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업계의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3면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사내 직원을 인플루언서로 활용하는 임플로이언서 마케팅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패션 기업들이 활발한데 삼성물산패션, LF, 무신사, 이랜드 등이 관련 콘텐츠를 꾸준히 기획, 제공해 실제 매출 확대 효과를 보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임플로이언서를 내세우는 것은 MZ세대가 회사 소속 직원의 제품 리뷰 등을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내 직원의 제품 체험기나 소개 콘텐츠는 유명인들을 내세운 것보다 전문적이고 믿을 만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기업에 소속된 젊은 직원들이 영상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에 비교적 덜 민감한 것도 관련 마케팅이 활발한 이유로 꼽힌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지난해 5월 취업 데이터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 91.3%는 취업과 채용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만큼 유튜브에 친숙하다. 또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2020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명 중 한 명은 유튜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유튜브를 꾸꾸는 이들은 많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인의 계정으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것도 임플로이언서 증가로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발표한 ‘2023년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이하 유튜버 비율은 64.9%로, 2021년 73.2%, 2022년 72.3%와 비교해 눈에 띄게 줄었다.

임플로이언서 마케팅 실무를 담당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B급 감성의 영상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젊은 직원들도 출연에 대해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 것 같다”며 “출연이 판매와 연계되면 본인의 성과로 인정받으니 자기 피알(PR) 시대에 적합한

한 것도 임플로이언서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사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제품을 소개할 수 있으니, 보는 이의 반감이 적어 저비용 고효율의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회사 직원들은 자사 제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 일반인이기에 좀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다”며 “고객들이 봤을 때 호소력이나 설득력이 연예인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진솔하게 느껴져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42@·문현호 기자 m2h@



벚꽃 만끽 서울 낮 최고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완전한 봄 날씨를 보인 7일 서울 구로구 도림천을 찾은 시민들이 만개한 벚꽃나무 아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양문석 ‘편법대출’ 파장… 상호금융도 전수조사하나

새마을금고, 양 후보 수사 의뢰 금감원, 이번 주 각 중앙회에 작업대출 사례 자체 점검 지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경기 안산갑·사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파장이 상호금융권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작업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작업대출에 대한 전수 점검에 이어 상호금융권까지 조사가 이뤄지면 양 후보 식(式) 대출 사례가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작업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자체 점검 이후 필요에 따라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작업대출이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행태를 말한다.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22년 1000건에 육박한 저축은행들의 작업대출을 전수조사했다. 해당 금융사 직원들은 정직·면직 등 엄중 조치됐다.

다만 금감원은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의 경우 꾸준히 검사·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까지 작업대출 전수 점검을 넓히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작업대출 취급 규모가 예상보다 커,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금감원과 중앙회의 공동 검사 결과 양 후보 대출을 취급한 대구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개

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국 개별 금고에 대한 전수점검 필요성에 대한 압박도 커진 상태다. 수성금고의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10건 중 7건 이상이 작업대출 유사 사례로 의심받았다.

중앙회가 전국 1200여 금고를 대상으로 한 작업대출 전수점검 실시를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중앙회 측은 전수점검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 중으로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수성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불과 1200억 원이고, 여신 규모는 700억 원 수준인데 그중 200억 원 넘는 정도의 사업자대출을 저희가 다 봤다”며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작업대출 내지는 불법 투기용 대출이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8일부터 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 등과 진행하는 개별 새마을금고 4곳에 대한 첫 공동검사에서도 용도 외 유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유하영 기자 haha@

이틀 앞둔 총선 “野 박빙 우세” 분석 여론조사 굳게 민다간 낭패 볼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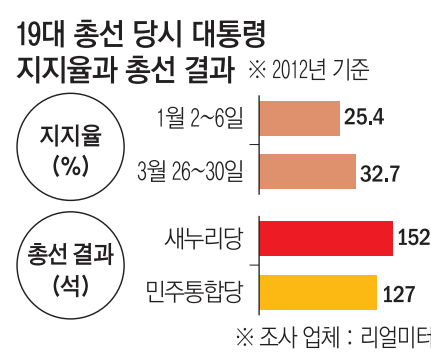
막판 표심 공략… 민주 “승기 잡아” 19대, 정부 지지율 뒤집고 與 압승 20대, 여론조사 달리 민주당 이겨

여야가 ‘블랙아웃’ 기간에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양당 자체 분석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야권 박빙 우세 흐름 속 ‘깜깜이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단 역대 선거를 보면 직전 여론조사가 마냥 선거 결과로 직결됐던 것은 아니다.

4·10 총선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4일부터 선거 당일(10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여야 각 시·도당이 취합한 판세에 온도 차가 감지됐다. 전체 지역구(254석)의 절반에 달하는 122석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10여 곳 우세, 더불어민주당은 약 80곳 우세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승리를 자신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관련기사6면

집권 3년 차 윤석열 정권에 대한 총선 직전 부정 여론이 높아졌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3일 전국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조사(유무선 ARS)한 결과 긍정평가 36.8%, 부정평가 59.8%였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2.5%p). 같은 기관의 정당 지지율 조사(2~3일 조사·유권자 1004명)에서는 민주당 44.6%, 국민의힘 36.0%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선 민주당 단독 과반 확보뿐만 아니라 비례정당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인 조국혁신당 의석을 더해 범야권 180석 이상 확보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범야권 200석·개헌저지선(100석) 붕괴



를 막아 달라며 적극적인 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가 일주일 후 선거 결과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20대 총선 일주일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39%, 민주당 21%로 ‘더블 스코어’ 격차였지만, 결과는 민주당(123석·새누리당 122석) 승리였다.

19대 총선을 앞둔 리얼미터의 2012년 3월 4주차 조사에서 임기 말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32.7%였다. 같은 기관의 1월 조사에선 25.4%로 집계됐다. 결과는 새누리당 152석 압승(민주당 127석)이었다. 새누리당 총선을 이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정부 차별화 전략과 민주당 일부 후보의 노인 비하 논란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2017년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 도입 후 치러진 21대 총선 직전 여론조사는 비교적 들어맞은 편이다.

리얼미터의 2020년 4월 1주차 정례조사에서 민주당은 43.2%,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28.8%로 집계됐다. 선거결과 민주당은 180석(60%) 압승을, 통합당(103석)은 역대급 참패로 개헌저지선을 겨우 방어하는 데 그쳤다. 양당 전망치(민주당 147석 ↑·통합당 125석 ↑)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엘런 ‘中 과잉생산·덤핑수출’ 제동… 美·中 추가회담 열린다

‘균형 잡힌 성장’ 논의 합의

美 공급망 보호 추가조치 가능성

러시아 지원한 中 기업도 경고

리창 총리, 美 수출규제에 불만

“양국, 적이 아닌 파트너 돼야”

중국을 방문 중인 재닛 엘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 산업 전략 축소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양국이 자금 세탁 방지 등 ‘균형 잡힌 성장’을 논의하기 위한 추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이 대중국 규제 고삐를 더욱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엘런 장관은 허리펑 중국 국무부 부총리와 광저우영빈관에서 이틀간 회담했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의 값싼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부문의 수출 급증은 미국 일자리에 대한 위협”이라며 “중국 측에 산업 전략을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엘런 美재무, 방중 주요 논의 내용

※ 출처: 뉴욕타임스(NYT)

- 허리펑 중국 경제 담당 부총리, 리창 총리 등과 회담
- 중국의 과잉생산·수출 문제 지적
- 중국, 미국의 대중 경제·무역 제한 조치 우려
- 거시경제 불균형 해결 역할
- 금융 안정과 자금 세탁 방지 합의
- 중국 기업 대러시아 전쟁 지원 중단 촉구



중국을 방문 중인 재닛 엘런(왼쪽) 미국 재무장관이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고 밝혔다. 또 “양국이 균형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집중적인 교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엘런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그들의 산업 전략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 기업들의 경쟁을 어렵게 만드는 수출품이 시장에 넘쳐날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과잉 생산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중국은 이것이 미국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공급망

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채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런 장관의 이번 방중 일정은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의 품목이 자국에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에 초점을 맞췄다. 엘런 장관은 허 부총리를 만나기 전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미국과 유럽 경영진을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듣고 중국의 수출 전략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에 불만을 나타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관리들이 미국의 대중국 경제, 무역 제한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의 류평위 대변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중국의 수출품은 공공재”라며 “전 세계적으로 고품질 산업의 역량은 과잉이 아니라 심각한 부족 상태에 있다”고 적었다.

양국의 추가 회담 개최는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엘런 장관의 방중 기간 미·중이

무역 문제에 관해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제 문제 외에도 미국은 러시아를 위한 중국의 전쟁 물자 지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엘런 장관은 허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또 그는 “우리는 중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물자로 러시아가 지원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중국 정부는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엘런 장관은 이날 오후 광저우에서 베이징으로 이동, 7일 리창 국무원 총리, 인민은행 총재, 관료인 재정부장 등과도 회담했다. 리창 총리는 “양국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며 “적이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엘런 장관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지만, 지난 1년간 양국 관계는 더 안정적인 기반에 놓였다”며 “서로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소통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화답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

“中 불 일 없다”… 日 뭉치돈, 美 소비산업에 베팅

美·中간 투자규모 5배 차로 벌어져

일본 기업들이 경제 성장이 정체된 중국 대신 가계 소비가 탄탄한 미국으로 물리면서 양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 규모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조 이신문(닛케이)이 7일 보도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6965억 달러(약 942조 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중국 투자액은 1425억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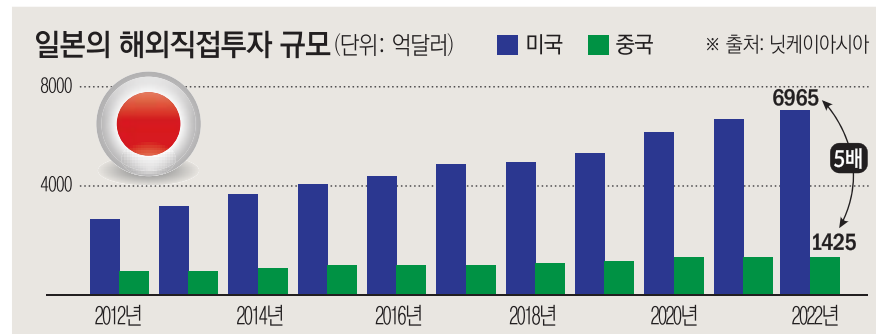
러에 그쳐 대미 투자액의 5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10년 전 2865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 넘게 증가했지만, 대중 투자는 같은 기간 500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본 기업들이 미국을 찾는 배경에는 가계 소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있다. 소비 지출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70%를 차지한다. 그 규모만 해도 중국 전체 GDP(약 18조 달러)와 맞먹는다. GDP가 4조 달러인 일본 경제와 비교하면 약 4배 큰 규모다. 닛케이는

“인구감소로 내수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은 돈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은 미국 가계를 겨냥한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1월 일본 부동산개발업체 세키스이하우스와 다이와하우스공업은 각각 미국 주택 건설업체 인수 계획을 밝혔다.

일본 최대 라면업체인 닛신식품은 지난해 11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인스턴트 라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건강음료 제조업체 야쿠르트



는 지난해 7월 조지아주에 두 번째 미국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서의 사업은 투자 대비 수익이 높지 못하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지난해 일본 기업의 미국 투자 수익률은 8%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18%)과 유럽 및 동남아시아(10%)에 비해 낮은 수치다. JETRO 뉴욕사무소의 요네야마 히로시 부국장은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 사업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전아현 기자 cahyun@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스마트농산업 국내 기반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 수직농장 지원 제도 정비



- 1 산업단지 입주 허용
- 2 농지 위 설치 허용
- 3 경제성 개선 위한 정책지원 강화

· ICT 농기자재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 1 센서·구동기·복합환경제어기(2월)
- 2 주요 기자재 환급 대상 확대 추진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



- 1 전문 교육기관 지정
- 2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3 스마트팜 전문 농업인 육성

· 기술기반 유망기업 집중 지원



- 1 민간투자 유치·경영실적 우수 기업 지원
- 2 수출 확대를 위한 전방위 지원

“우리 직원들 뭘 입냐면요”... 패션회사 쇼츠에 지갑 열린다

(1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

패션·뷰티업계 임플로이언서 활용 사례



연예인 뺨치는 ‘임플로이언서’

직원이 자사 제품을 회사 계정의 유튜브 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직접 소개하는 ‘임플로이언서’가 패션·뷰티업계의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임플로이언서는 직원을 뜻하는 ‘임플로이(Employee)’와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다. 임직원은 자사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일반인보다 더욱 자세하게 제품을 소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기 때문이다. 패션 회사 직원이 ‘뭘 입고 출근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임플로이언서 마케팅이 효과를 거두는 이유로 꼽힌다.

7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패션 부문, LF, 이랜드 등 국내 주요 패션기업들은 자사 유튜브에서 임플로이언서 마케팅을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운영하는 ‘알콩티비’는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으며 성공한 기업 유튜브 사례로 꼽힌다.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은 직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출근룩이다. 올해 초 업로드한 ‘2024 패션회사 새해 출근룩 1탄’은 11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패션·뷰티 전문적인 식견 기대 출근룩·가방·지갑 수백만 클릭

LF, 쇼츠 제품 매출 20배 ‘급증’
브랜드 ‘유스’ 영상 올린 무신사TV
전주대비 매출 45% 증가하기도

LF가 운영하는 채널 ‘LF랑 놀자’도 임직원들의 출근룩 영상이 연일 화제다.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영상은 1년 전에 올라온 ‘패션회사 직원들의 가방모임’으로 40만 회를 기록했다. 임직원들의 지갑, 가방을 소개하는 영상도 높은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LF랑 놀자’ 채널에 올라온 쇼츠 중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지갑을 소개하는 영상 3편의 조회 수가 200만~300만 회에 육박한다. LF 유튜브에서 출근 가방으로 소개된 ‘아떼바네사브루노 백팩’은 콘텐츠 업로드 직후 매출이 약 20배 급증하기도 했다.

이랜드그룹도 임플로이언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랜드의 유아동 쇼핑 플랫폼 ‘키디키디(kidikidi)’가 대표적이다. 키디키디 브랜드는 직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후기를 마케팅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랜드의 신발 편집숍 ‘폴더(Folder)’ 매장 직원들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북 등을 적극 활용해 판매 사원이자 임플로이언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랜드의 한 직원이 직접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아디다스 핸드볼 스페셜 스니커즈’를 알린 후 폴더 플랫폼에서 아디다스 매출(1월 12~18일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42% 성장하기도 했다.

패션 플랫폼 중에서는 무신사의 유튜브 채널 ‘무신사TV’가 유명하다. 이는 무신사 직원들의 출근룩과 직무별 직원의 일과를 보여주는 코너다. 무신사TV의 활동 역시 매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달 말에는 브랜드 ‘유스’를 자체 코너를 통해 소개하자 직전 주 대비 매출이 45% 증가했다. 이 밖에 뷰티업계에서는 CJ올리브영이 유튜브 채널 ‘올영TV’를 통해 사내 MD가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직원들이 추천한 제품의 경우 품질이 우수하다고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많아 실제 구매로도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42@

프로젝트 담당 직원이 화보 모델로

롯데면세점은 작년 10월 오픈한 면세점 ‘LDF 하우스’를 최근 ‘나우인명동’으로 리브랜딩했다. 새 공간을 알리기 위해 유명 연예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 대신 ‘자사직원’을 전면으로 앞세웠다. 나우인명동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 활용되는 화보에 롯데면세점 직원이 직접 광고 모델로 나선 것이다. 최근 유튜브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임플로이언서(Employee+Influencer 합성어)’ 마케팅의 대표 사례다.

화보 모델로 참여한 롯데면세점 LDF하우스팀의 우지민 대리(오른쪽)와 박주안 홍보팀 사원(왼쪽)은 각각 94년생, 95년생으로 MZ세대 직원이다. 특히 나우인명동의 리브랜딩 프로젝트 메인담당자인 우대리는 직접 모델로 나설 정도로 이번 리브랜딩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우대리는 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나우인명동을 알리기 위해 리브랜딩 이미지를 어떻게 한눈에 잘 담을 수 있을지 콘텐츠를 고민하다, 핵심 비주얼인 노란색 쇼퍼백을 활용한 광고용 홍보 사진 촬영을 기획했다”며 “컨셉에 맞는 비주얼을 갖추고 협조도가 좋은 내부 직원을 선별하자는 생각에 일일이 미팅한 후 박주안 사원을 최종 선발해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사원은 첫 섭외 당시를 떠올리며 “모델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외부에 화보가 전시된다는 부담감과 걱정이 처음엔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하지만 신사업인 만큼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직원이 참여해 홍보하면 좋



우지민(오른쪽) 롯데면세점 LDF하우스팀 대리와 박주안 홍보팀 사원.

컨셉트 잘 아는 직원을 전면에
“정제된 것보다 ‘날것’이 인기”

은 시너지를 낼 것 같아 흔쾌히 참여했다”고 했다. 박 사원은 “개인적으로 작은 도전이자 새로운 경험이라 긍정적으로 느껴졌다”며 “걱정도 잠시, 막상 촬영을 진행하니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기억뿐”이라고 말했다. 고생 끝에 나온 화보가 공개되자, 가족·친구는 물론 사내 직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될 만큼 주변 반응이 뜨거웠다.

두 사람은 유명인보다 직원들이 참여하는 임플로이언서 마케팅이 더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들에게 ‘진정성’과 ‘친근감’을 전달하는 데 더 설득력이 높다는 설명이다. 우대리는 “요즘엔 너무 정제된 것보다, 이른바 ‘날것’ 콘텐츠가 많은 인기”라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일반인 직원이 직접 나섰을 때 소비자들에게 소구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향후 새 프로젝트 기회가 생긴다면 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문현호 기자 m2h@



글로벌 시장 개척-

Ksure가

빛을 밝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수출,
K-SURE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차등적용” vs “적용확대”… 발등에 떨어진 ‘최저임금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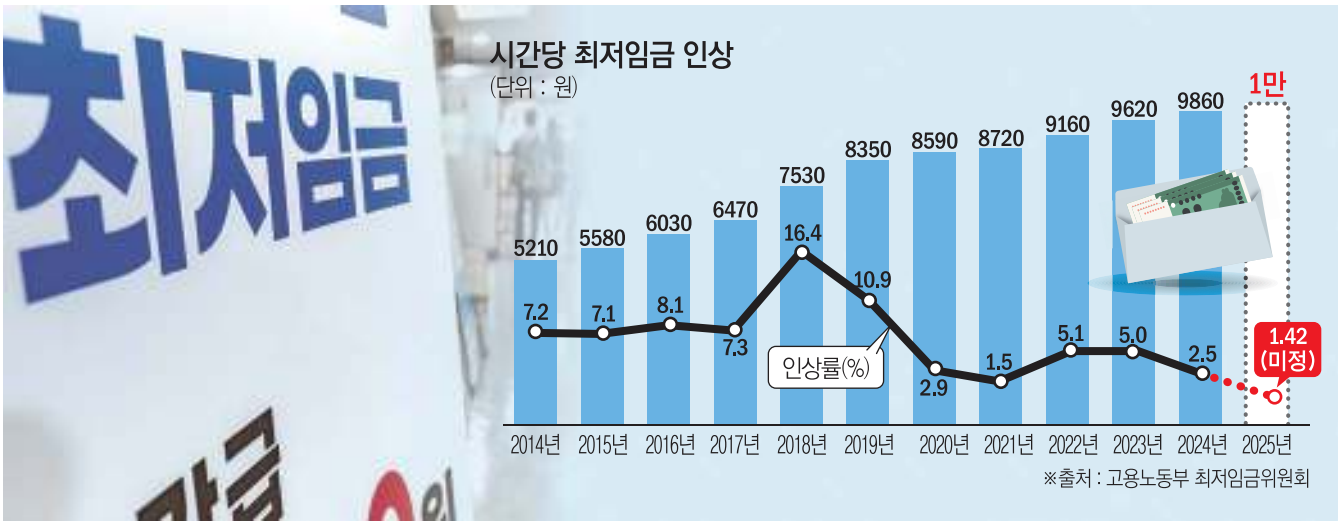
최임위 내년도 심의절차 시작

최저임금 1만원까지 140원 남아
노동계, 고물가 내세워 대폭 인상
경영계,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
공익위원 교체 변수로 작용할 듯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이 최대 쟁점이다.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이다.

주된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었다. 1.42% 이상 인상되면 내년 최저임금



은 1만 원을 넘게 된다.

노동계는 고물가를 내세워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임금총액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뺀 실질임금 증가율은 2022년(-0.2%)에 이어 지난해(-1.1%)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실질임금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명절 상여금 이동(1월→2월) 효과로 1월 명목임금이 8.6% 줄어 실질임금 감소 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 경

영계는 올해도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고물가는 상품 등 제조원가를 높여 경영계에도 부담이다. 여기에 인건비도 오르면 경영계의 부담은 더 커진다.

가장 큰 쟁점은 경영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실제 차등 적용된 건 1988년뿐이다. 업종별 차등이 안건으로 오를 때마다 노동계가 거세게 반대했다.

올해는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업종별 차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한은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분야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해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관계부처에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가사·육아 분야 취업 허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움직임에 반발해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추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임에도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돌봄노동자들의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경영계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된 가운데, 공익위원 교체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나머지 1명은 고용부 공무원)의 임기가 다음달 13일 만료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이 표결로 결정되는 구조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공익위원은 매년 최임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최임위원은 고용부장관 제정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가 공익위원 위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온실가스 배출량 24% 줄어…“원전확대 영향”

탄핵위·환경부, 현황 분석

원자력발전과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E·Carbon Free Energy) 확대로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5년 새 24%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핵위)와 환경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전원별 발전량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연내 유엔에 ‘제1차 격전투명성보고서’(BRT)를 제출하고 내년까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 이번 분석 현황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발전산업을 비롯한 전환 부문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370만 톤(t)으로 전년인 2022년 잠정치(2억1390만 톤)와 비교해 4.8% 줄었다.

특히 2018년 이후 무탄소 발전이 68.1TWh(테라와트시) 늘어 전력 소비량 증가분인 17TWh를 충당하고, 석탄 발전 가동축소 등을 이끌며 전환 부문 탄소 감축률이 5년 새 24.1%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량은 각각 56.7TWh와 180.5TWh로 2022년(53.2TWh와 176.1TWh)보다 6.6%와 2.5% 늘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발전은 지난해 342.7TWh로 2022년 356.8TWh보다 4.0% 감소했다.

정부는 이런 에너지 전환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무탄소에너지 주류

〈2018년 대비〉

연도별 총 발전량 (단위: 백만톤CO2e, TWh) ※ ()는 감축률,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223.7(+2.6)	213.9(-4.4)	203.7(-4.8)	
총 발전량	576.8(+4.5)	594.4(+3.1)	588.2(-1.0)	
무탄소	201.1(+2.2)	229.3(+14)	237.2(+3.4)	
원자력	158.0(-1.4)	176.1(+11.5)	180.5(+2.5)	
신재생	43.1(+18.1)	53.2(+23.4)	56.7(+6.6)	
화석발전(석탄·LNG)	366.4(+7.1)	356.8(-2.6)	342.7(-4.0)	

2018~23년 온실가스 배출량 작년 기준 4개 부문 추산 공개 원전·수소 등 무탄소 정책확대 탄소중립 통한 국가경쟁력 ↑

화(CFE 이니셔티브)’ 국제적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4470만 톤으로 전년 2억4580만 톤보다 0.4%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철강업체들이 노후 고로를 폐쇄하고 반도체업체들이 불소를 처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산업계의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다 강도 높은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 100대 기술 개발과 철강 분야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등을 추진하고 산업 부문의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자금을 450조 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물과 수송 부문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추산치는 각각 4520만 톤과 9500만 톤으로 전년(4830만

톤과 9780만 톤)과 비교해 6.4%와 2.9% 감소했다.

탄핵위는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잠정치)은 전년 대비 2210만 톤 감소한 6억5400만 톤으로 2010년의 6억5510만 톤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등 주요 4대 부문에서 전년 대비 약 1727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배출이 많은 일부 선진 국가는 감축경로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 및 영국, 일본 등은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선행 경로에 따라 감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인 정부 때 2030년 NDC를 수립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까지 높이기로 한 것과 수소와 다른 연료를 혼합해 발전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한 것, 플라스틱 원료를 바이오나프사로 전환하기로 한 것 등 비현실적 감축 수단을 에너지 전환비중 조정 등을 보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法 “공공일자리 활동, 근로 아나 근무 중 사망, 산재 인정 어렵다”

보건복지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도중 사망한 노인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 씨의 자녀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부터 한 복지관 소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1일 3시간 내외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했다.

문제는 A 씨가 경기도 양평군의 한 아파트 인근 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지나가던 차량 우측사이드미러에 머리를 치이는 사고를 당하며 시작됐다. A 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자녀 B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이 ‘A 씨를 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A 씨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루 3시간 한 달 30시간가량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한 점, A 씨가 복지관이 지정한 팀장의 지휘를 받으며 활동하고 활동일지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에게 취업,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A 씨가 복지관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따라 공익사업 일환으로 이루어진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하루 3시간 범위 내에서 쓰레기를 줍고 받은 2만 7000원은 교통비, 간식비, 시간당 활동 실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보조금이나 사회활동 참여금의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B 씨의 주장대로 A 씨가 소속된 팀에 팀장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팀장 역할이 감시나 제재 업무가 아니라 안전을 점검하고 활동 시간을 기록한 일지를 수거하는 정도에 불과해 근로를 지휘, 감독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A 씨를 비롯한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시간을 조율할 수 있었던 점, 출석하지 않거나 지각, 태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나 제재 등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지관이 해당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점 등도 A 씨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설명했다.

박꽃 기자 pgot@

빌트인 가구 ‘짬짜미 입찰 10년’ 분양가 턱없이 비싼 이유 있었네

총 738건...관련 입찰 매출액 2조원
주사위·제비뽑기로 낙찰예정자 정해
공정위, 한샘 등 가구업체 31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1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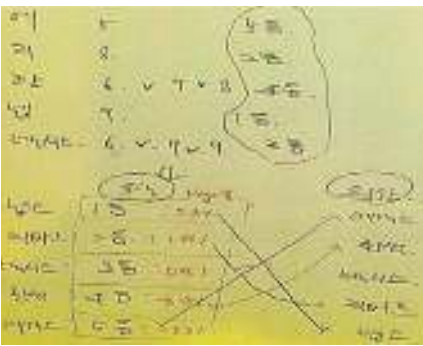
분양 아파트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짬짜미를 벌여 온 31개 가구 제조·판매 업체들이 적발됐다. 관련 매출액만 2조 원에 달한다. 이들은 930억 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 원(잡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을 합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판가구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단단 위 공동주택의 건축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다. 크게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 주방가구와 불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 일반 가구로 분류된다.

특판가구입찰은 대부분 최저가 지명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건설사들은 협력업체 풀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건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주사위 굴리기와 제비뽑기를 통해 만든 낙찰 순번표.

사진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설사별로 입찰 참여업체들이 달라진다. 때문에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 입찰에 참여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됐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하자 경쟁이 심해졌고, 이에 업체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와 순번 등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영업체 우대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면 들러리는 금액을 높여 견적을 냈고, 이같은 과정을 거쳐 낙찰과 함께 들러리는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기도

했다.

10년간 이어져 온 담합의 입찰 계약금액은 모두 1조9457억 원에 달했고, 이는 아파트 분양 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샘 211억5000만 원, 현대리바트 191억2200만 원, 에넥스 173억9600만 원 등 31개 업체에 931억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지난해 8개 가구업체와 12명의 전·현직 임원은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된 특판가구입찰 담합을 제제한 사례로 가구업체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리터당 1647원... 휘발윳값 2주째 상승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전국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이 2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기준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ℓ)당 1647.0원으로 전주 대비 7.5원 상승했다. 경유는 1540.2원으로 전주보다 2.0원 올랐다. 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수출, 반도체 중심으로 빠른 증가 내수는 고금리 기조 속 회복 더뎠”

KDI ‘4월 경제동향’

3월 수출 566억불...6개월째 ↑
2월 소매판매 -3.1%, 감소전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반도체를 중심으로한 수출의 높은 증가세가 우리 경제의 부진 완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고금리기조 지속으로 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7일 발표한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나, 수출이 정보기술(IT)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의 높은 증가세가 경기 부진 완화를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KDI가 계속해서 수출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갈수록 수출 회복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달 수출액은 565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1% 늘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핵심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35.7% 늘어난 117억 달러로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치

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증가세다.

반도체와 함께 4대 IT 품목으로 꼽히는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늘어 2022년 3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 품목 수출이 동반 증가했다.

이와 달리 내수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2월 재화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3.1% 줄어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3.1% 감소는 지난해 7월(-3.1%)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고금리 장기화, 생산시설 공사, 조업일수 축소 등으로 승용차(-17.8%)와 통신기기 및 컴퓨터(-10.1%) 등은 대폭 줄었다.

서비스 소비도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4.5%),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1.1%), 교육 서비스업(-1.3%)은 마이너스 성장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올해 2월 101.9에서 3월 100.7로 낮아졌다.

고금리기조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인해 서비스 물가 상승률(전년 대비)은 올해 2월 2.5%에서 3월 2.3%, 근원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2.5%에서 2.4%로 떨어졌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짹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펜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진 피부 나이

10.6%

볼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증 개선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펜'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올리브영 매장
[*사용 7일 후, 인체 적용 시험 결과(시험기간: 2023.01.25~2023.03.10) [시험대상] 성인 여성 30명 [시험기관] (주)글로벌리얼연구소]

‘적중’ 은커녕 ‘적당히’ 도 못맞힌 여론조사… 이번엔 다를까

8년 전인 2016년 20대 총선 직전 여론 조사는 과녁을 크게 빗나간 사례로 회자된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선거일 6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들어가기 전 발표된한국갤럽의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39%, 더불어민주당은 21%로 집계됐다. 보수 과반을 점치는 시각이 우세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이 123석(새누리 122석)으로 ‘1석차’ 1당에 올랐다. 국회의장도 민주당 몫이 됐다.

당시야권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분열로 패색이 짙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여당 주류였던 친박(친박근혜)계의 비박(비박근혜)계 공천 학살에 따른 갈등이 야권 분열을 상쇄했다. 국민의당이 호남·비례 합산 38석 돌풍을 일으켰지만, 민주당은 반대급부로수도권 의석을 휩쓸면서 여론 조사 결과를 무위로 만들었다. 당시 보수

“20대 새누리 39% 민주당 21%” 뚜껑 열어보니 민주당 ‘1석차’ 승 21대 대구수성갑 박병 점쳤지만 주호영, 20%p차로 김부겸 제쳐

의 공천 파동 후폭풍은 19대 대선·7회 대선·21대 총선까지 전국 선거 4연패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2년 전 20대 대선에서야 연패 사슬을 끊었다.

20대 총선의 서울 종로·은평을도 관련 사례로 묶인다. 당시 오세훈 새누리당 종로 후보는 정세균 민주당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섰다. 오 후보의 낙승이 예상됐다. 정 후보는 선거 약 3주 전 발표된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오 후보 45.8%, 제가 28.5%로 17.3%포인트(p) 격차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해 달

라. 왜곡인지 아닌지 증명하겠다”고 반발했다. 결과는 정 후보(52.60%·오 후보 39.72%)의 압승이었다. 은평을에서도 선거직전 여론조사는 새누리당을탈당한 비박(비박근혜)계 좌장 이재오 무소속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금배지는 강병원 민주당 후보의 몫이 됐다.

비슷한 사례는 21대 총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선거일주일 전(8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 대구 수성갑 주호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43.9%)와 김부겸민주당 후보(38.3%)는 오차범위내 접전(표본오차 ±4.4%p.)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주 후보(59.81%·김 후보 39.29%)의 넉넉한 승리였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의 설화로 전국 판세가 요동친 사례도 적지 않다. 21대 총선 직전 막말 파문으로 통합당에서 제명된 김대호(관악갑)·차명진(부

막말 등 돌발변수 전국판세 영향 이번에도 민주당 김준혁 막말 논란 與野 대표까지 나서 ‘네거티브전’ 격전지 50여곳 투표함 열어야 결판

천병) 후보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통합당은 공식선거운동 첫 판세 분석에서 ‘우세’로 분류한 전국 지역구 50여 곳을 막말 논란 이후 경합 또는 열세로 재조정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는 21대 총선 참패 후 열린 토론회에서 “선거 일주일 전까지 지역구 130석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당시 통합당은 지역구 84석을 확보했다. 단 일주일 만에 예측 대비 46석이 증발한 셈이다. 정치권이 선거철마다 내부 입단속에 주력하는 배경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여야는 수백·수천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릴 전국 접전지를 50여 곳으로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막말 논란이 불거진 장예찬(부산 수영)·도태우(대구 중남)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이른바 ‘이대생 미 장교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도 자당을 향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쓰레기’·‘개같은정치’ 등의 발언을 막말로 규정하는 등 연일 양측의 네거티브 공방이 고조되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깜깜이) 이전의 논란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남은 기간 선거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당의 발목을 잡는 아픈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김은재 기자 silverash@

“광진구 밀착·정책 전문가 지역 발전 민관TF 만들 것”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 AI 등 4차산업 혁신벤처 유치”



7일 서울 광진구 군자동복합청사 앞 광진갑 김병민 국민의힘 후보와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이 걸려있다.

수도권 격전지 ‘한강벨트’에 속하는 서울광진갑은 여야가 번갈아당선돼온 ‘스윙보터’ 지역이다. 4·10 총선에서 맞붙게 된 기자출신더불어민주당 이정현 후보(45.5%)와 시사평론가인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45.0%) 지지율도 초접전세를 보였다.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이 1일 광진갑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지역구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45.5%, 김 후보가 45.0%로 집계됐다.(여론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

21대 총선에서는현역의원이기도한 민주당 전혜숙 후보가 53.68%를,당시에도 후보로 출마했던 김 후보가 40.60%를 얻었다. 그러나 20대 대선에

선광진갑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2.36%,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3.96%를 득표했다.

이 후보는정권심판의 선봉에 서면서도 광진 발전을 위한 책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경호 국민의힘 구청장 등과 함께 속도감 있는 광진 발전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현장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후보들의 유세 현장을 동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지역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을 향해 “기호 1번! JTBC 앵커 출신 이정현입니다!”를 외치며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는 배우자와 함께 어르신들의 손을 잡으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를 만난 지역 유권자들은 ‘젊어서 좋다, 잘 부탁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어르신들을 향해 큰절을 한 뒤 “꼭 투표 부탁드립니다”며 “당선 돼 또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세 중 기자와 만난 이 후보는 “이번 총선은 광진과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선거”라며 “2년간 윤석열 정부 임기 중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경제는 폭망, 외교는 참사가 났다.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본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임을 자신했다. 이 후보는 “오랜 시간 기자와 앵커를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전하는 뉴스를 국민께서 믿어주셨기 때문이고, 그 누구보다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등 4차산업 벤처기업 유치’와 지역 특색을 위한 ‘아차산·용마산 등지 힐링 관광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저소득 노인 세대를 위한 ‘노인복지센터 확충’, ‘세무서 설치’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도 같은 날 오후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아파트상가앞에서 열린 유세차 연설에서 ‘지역 밀착형’ 후보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진짜 광진 사람, 진짜 광진 토박이”라며 “광진 전문가 김병민이 서울시장, 구청장과 원팀으로 광진 발전을 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세차에서 내려와 인사를 건네는 김 후보를 향해 “이번에는 꼭 돼라!”는 응원

을 보내는 유권자들도 있었다. 이 후보가 유세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후보보고 뽀겠다’이다. 그만큼 총선을 목전에 둔 막판 전략도 정책·공약 집중이다.

김 후보는 지역 발전을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또 광진구 내 도시철도 신설로 교통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구 내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민이 원하는 건 일하는 국회”라며 “지난 4년간 광진 지역 변화와 발전을 위해 십없이 달려왔다.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공약을 꼼꼼하게 담아 주민분께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정영민 기자 oin@

나라 곳간 비어가는데… 간이과세 확대·출생기본소득 ‘퍼주기’

4·10 총선 공약, 제 점수는요

22대 총선이 초입기에 접어들면서 한 표가 아쉬운 여야의 선심성 공약 경쟁도 점입가경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 없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혈세 투입을 전제한 현금성 공약과 전 국민을 겨냥한 고강도 감세 정책을 총선 막판에 쏟아내고 있다. 모두 국가 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공약임에도, 당장 4년간의 의회 권력 확보가 급한 여야가 합세해 ‘대국민 대표전’에 나선 셈이다.

◇간이과세, 현재 8000만 → 정부 1억 400만 → 국힘 공약 2억… 두 달 만에 경총(★★☆☆☆)=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

여야,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 없이 선심성 공약 남발 ‘대국민 대표전’

대책위원장은 1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일반(세율 10%)·간이과세자(세율 1.5~4.0%)로 나뉘는데, 세제 혜택 대상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월 간이과세자 기준을 시행령으로 높일 수 있는 최대치(130%)인 1억400만 원으로 조정하겠

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손질해 정부가 올린 기준에서 약 2배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행 대비 2400만 원 올린 것으로 14만 명이 감세 혜택을 보고 세수는 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것을 두 배로 높이면 줄어들 세수는 조 단위를 넘어 설 수 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가공식품 등에 대해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가세수는 약 74조 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 21.4%였다. 소득·법인세와 3대 세목으로 묶인 부가세 감면도 결국 정부 재정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지난해 세수평가 규모는

56조 원이었다.

◇전 국민 지원금에 출·아·청 기본소득… 누구 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과 27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자녀 1인당 8·17세까지 월 20만 원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각각 약속했다. 민생지원금예산으로는 13조 원이 들 것으로 봤다. 출생소득과 별개로 0·18세까지 월 10만 원씩 펀드 계좌로 적립해주는 ‘기본자산 1억 원’도 공언했다. 공약 이행에만 연간 복수의 ‘손톱’이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일 0·7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 8·24세에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0·7세 기본소득에 14조 5000억 원, 8·24세 기본소득에 30조 원 등 연간 44조 5000억 원이 들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부부와 8·17세 사이 자녀가 둘 있는 4인 가구는 첫 달 민생지원금 100만 원과 함께 매월 160만 원(출생 40만 원·청소년 100만 원·펀드 20만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저출산예산 조정·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폐기만으로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단순 현금 살포에 쓰일 연간 재정 규모 자체가 지나치게 방대한 데다 정부 여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공수표에 그칠 공산이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이러한 공약을 겨냥해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Samsung
Financial Networks

보이는 보험

어렵고
험난한 길은
삼성화재가
주저없이 달려가는 길

보이는 보험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이
탄탄한 출동 네트워크로
고객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KCSI
26년 연속(1998~2023)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자동차보험부문 1위
KMBC 선정

일상을 지키다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16908호(2024.02.26~2025.02.25)

韓은 중원 다지기, 李는 힘지 강남에… 한층 거칠어진 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대전 노은역광장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를 방문, 서초구에 출마한 홍익표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준혁 비호’ 민주당은 여성혐오 정당”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사활 앞둔 7일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권을 찾았다.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선 “왜 개품을 잡나”, 야권 후보 등에 대해선 “성도 착 아니냐”라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오전 가장 먼저 대전을 찾았다. 대전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7곳을 모두 가져간 곳이다. 이날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대전 유성

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것”이라며 사회연대임금제를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초등학교 같은 발상이 있나?”라며 “덜 받은 분들을 더 잘 벌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의 임금을 내리겠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소비는 누가 하며,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을) 의원에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조국대표를 비롯해 야권 후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조 대표가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으로 내건 점 등을 두고 “자기들은 모든 돈 구석구석 쪽쪽 범지로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를 보고는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품’을 잡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조 대표가 ‘조국식 사회주의’를 얘기한다. 세금 징세권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조 대표는 4일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대기업 임금을 낮추게 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중

‘이화여대생 미군 장교 성 상납’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준혁 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정)에 대한 비판도 계속됐다.

한 위원장은 “김 후보가 방송에서 정조 대왕(관련) 얘기를 하면서 ‘사이즈가 안 맞아 어디가 굵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래 놓고 어떤 근거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 말을 직장 동료나 다른 여성 동료들에게 억지로 듣게 하면 그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것”이라며 “이건 성도 착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민주당이 비호한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대표로 밀어 넣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여성혐오 정당이고 성희롱 정당이다”라고 비난했다.

대전=김은재 기자 silverash@

“尹정권 방치하면 안돼… 회초리 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힘지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찾아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48석이 걸린 서울 내에서 보수색채가 가장 짙은 지역인 만큼 “윤석열 정권에 기대를 갖고 있을수록 더 엄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 양재역 인근 유세 현장에서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고, 여전히 기대를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자신과 대한민국이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윤석열 정권, 윤 대통령도 불행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귀한 자식일수록 잘못이 있으면 엄히 꾸짖고, 꾸짖어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자식 귀하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해도 ‘오냐 오냐’ 하고, 악행을 저질러도 방치하면 그 자식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악인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과연 그제 그 자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겠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서초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후보를 선

택했지만 조금만 돌아보시라”며 “경쟁하지 않는 대리인이 과연 주인에게 충성하겠나. 잘해도, 못해도 무조건 한 쪽을 선택하면 그들은 국민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다. 대리인, 일꾼에게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재 유세 현장에는 김한나(서초갑)·박경미(강남병) 후보도 동행했다.

이 대표는 강남 수서로 이동해 총선 영입인재인 의사 출신 강청희 강남을 후보 유세를 도왔다. 이 대표는 “강남을 새 물결이 시작됐다. 포기하지 않고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면서 “강청희가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못된 정권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거역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송파 신천동·석촌동·오금동을 잇달아 찾아 조재희(송파갑)·송기호(송파을)·남인순(송파병)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 하남에 들러 추미애 하남갑 후보 지원사격을 마치고 ‘강남 4구’로 묶이는 서울 강동에 들러 진선미(강동갑)·이해식(강동을) 후보를 지원했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THE HYUNDAI

NEW OPEN

FOOD PARK

현대백화점 중동점 B1 | 7 부천시청역 3번 출구

지금 가장 현대적인 미식 생활,
푸드파크가 찾아옵니다

푸드파크에서 현대백화점이 엄선한 미식 브랜드를 경험해 보세요.
전국 로컬 맛집부터 트렌디한 디저트까지, 미식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호우섬
홍콩 현지 맛을 재현하다

소바 카페인
정호영 셰프가 선보이는 소바

노티드
다양한 도넛을 즐길 수 있는 디저트 카페

치플레
연남동의 치즈 수플레 숍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면세점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어울 | 현대그린푸드 | 한성 | 더한성닷컴 | 현대리바트 | 현대이저빌 | 지누스 | 현대드림투어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로보택시 승부수 걸었지만… “테슬라 고성장 의문”

머스크 “8월 로보택시 공개”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의 성장 둔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로보택시에 승부수를 걸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엄청난 성장의 시대가 끝났다면 주가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머스크 CEO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의 로보택시 제품을 8월 8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 생산 계획을 폐기하고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올인할 것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가 나온 후 발표했다. 다만 머스크 CEO는 로이터 보도에 대해 “로이터가 또 거짓말하고 있다”며 “로이터는 죽어가는 중”이라며 부인했다. 이는 전기차 사업과 무관하게 로보택시 사업을 구상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테슬라 주가는 저가 전기차 생산 계획 폐기 소식이 전해진 후 3.6% 급락 마감했지만, 이후 머스크 CEO가 해당 보도를 부인하고 로보택시 공개 계획까지 밝히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4% 가까이 반등했다.

머스크 CEO는 수년간 로보택시 프로

젝타를 거론해 왔지만, 구체적인 결실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테슬라 판매 성과가 최근 부진하자 로보택시 사업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주 1분기에 38만7000대를 판매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인 44만9000대를 크게 밑도는 수치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슬라 직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로보택시 개발을 우선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시장은 머스크 CEO가 로보택시와 저가 전기차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추구하는 것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퓨처펀드어드바이저스의 개리 블랙 공동 창업자는 “현재 시장에 출시된 2만5000달러(약 3383만 원)짜리 전기차와 경쟁하기 위해선 테슬라에 같은 값의 소형 차량이 필요하다”며 “현시점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노력을 배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려는 주가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약 34% 하락해 S&P500지수에 편입된 종목 중 최악의 성적을 기록 중이다. 나스닥100지수에서도 1월 초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종목으로 집계됐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데이터트랙 분석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 밸류에이션의 약 76%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수익 잠재력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가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지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JP모건체이스의 라이언 브링크먼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더는 고성장 기업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훨씬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운드힐인베스트먼트의 데이비드 마자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실질적인 촉매제가 나오지 않고 있어 현 단계에서 테슬라 주가 바닥을 찾는 것은 어렵다”며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는 것과 같은 (정통적이지 않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머스크 CEO는 로보택시를 통해 행동하려는 것 같지만, 테슬라가 핵심 사업인 전기차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을 전하지 않는 한 그것은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에콰도르 항구도시 과야킬에 있는 최대 보안 교도소인 라로카에서 특별교도소행동그룹(GEAP) 요원들이 6일(현지시간) 호르헤 글라스(가운데) 전 부통령을 호송하고 있다. 에콰도르 경찰은 전날 수도 키토에 있는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 진입해 멕시코 정부로부터 정치적 망명을 허가받은 글라스 전 부통령을 체포했다. 이에 격분한 멕시코 정부는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과야킬(에콰도르)/AFP연합뉴스

英 템스워터, 디폴트 위기… 유럽 정크본드 줄도산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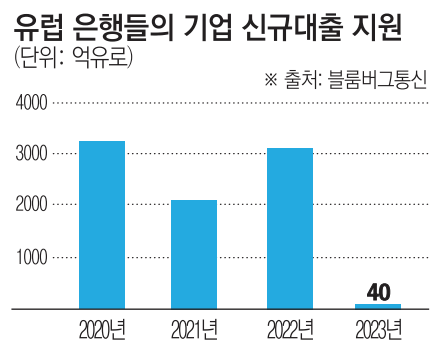
〈최대 수도회사〉

6840억 규모 회사채 이자 미지급
금리 상승에 CCC급 회사채 외면

영국 최대 수도회사인 템스워터가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놓인 가운데, 투자자들이 ‘투기등급 채권(정크본드)’ 중 가장 낮은 신용등급인 ‘CCC’ 등급 채권을 외면하면서 유럽에서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주 템스워터는 성명을 내고 “4억 파운드(약 6839억 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기한 내 지급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템스워터는 영국 인구의 약 4분의1 이상이 사용하는 물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전체 160억 파운드에 달하는 미상환 부채를 갖고 있다. 템스워터가 부채 위기를 겪으면서 비슷한 체급의 채권을 보유한 기업들도 위기에 놓였다.

최근 몇 년간 유럽 자산운용사들은 수익률을 높이고자 낮은 등급 채권을 구매해 왔다.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 덕분에 정크본드를 발행한 기업들의 디폴트 가능성



이 줄어든 점이 주요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수십 년 만에 가장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기업들이 대출자에 애를 먹자 투자자들도 손을 떼기 시작했다. 게다가 2020년 이후 유럽 은행들의 여내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은 99% 급감한 상태다.

특히 디폴트 우려가 있는 CCC 등급 채권에 관한 관심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CCC 이하 등급이 유럽정크지수의 8%에 불과하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지만, 불안은 지속하고 있다. 티케하우캐피탈의 라파엘 투인 투자 전략가는 “금리 인상 효과가 18~24개월

동안 나타난다는 게 중론인데, 우리 지금 그 시기에 있다”며 “앞으로도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용평가사들도 유럽 정크본드 위기에 주목하고 있다. 피치는 부채 만기와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유럽에서 고수익·고금리의 하이일드 채권 부도율이 지난해 1.7%에서 올해 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유럽 기업들의 디폴트 증가로 인해 전 세계 디폴트가 2009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미국이 가장 많은 17건의 디폴트가 일어났지만, 유럽은 어느 지역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S&P글로벌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수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볼 때 유럽의 디폴트는 단기적으로 계속 증가해 여름철 부도율이 다소 상승할 것”이라며 “침체한 소비자 수요가 여전히 채권 발행 기업의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에콰도르, 대사관 급습 후폭풍 주변 국가들 단교·규탄 잇따라

망명한 전 부통령 잡으려
멕시코 대사관 강제 진입

에콰도르 당국이 전직 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자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 진입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벌여 외교적 후폭풍에 맞닥뜨렸다. 멕시코는 물론 니카라과가 국교 단절을 선언하고 주변 남미 국가들도 잇따라 규탄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이날 멕시코는 에콰도르가 국제법과 멕시코 주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을 했다며 외교 관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에콰도르 경찰이 전날 저녁 수도 키토에 있는 주에콰도르 멕시코 대사관 출입구를 부수고 강제로 들어가 호르헤 글라스 전 에콰도르 부통령을 체포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법상 대사관은 대사관이 대표하는 국가의 주권 영토로 간주된다.

니카라과도 “이례적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건”이라며 에콰도르와의 단교를 발표했다. 대사관 습격 사건을 계기로 에콰도르는 외교적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온두라스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

을 촉구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멕시코 대통령과 연대를 표명하고 에콰도르의 대사관 습격을 강하게 비판했다. 볼리비아, 칠레 등 주변 남미 국가들도 에콰도르의 행동에 대한 분노와 비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2013~2017년 부통령을 지낸 좌파 성향의 글라스는 부패 혐의로 2차례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작년 12월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후 키토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 피신해 있었다. 이에 에콰도르 당국은 부패 혐의를 받는 글라스 전 부통령에 대한 망명 보호는 불법이라며 멕시코 대사관에 들어가 글라스를 체포할 수 있도록 신변 인도를 요구했다. 하지만 멕시코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 진입까지 감행한 것이다. 멕시코는 습격 직전에 글라스의 망명을 허가했다.

앞서 작년 10월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성향의 국민민주행동(ADN) 소속 다니엘 노보아 아신이 당선된 것에 대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3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에콰도르는 그다음 날 라켈 세루르 주에콰도르 멕시코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노 그라타)’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짐바브웨, 금값 기반 새 화폐 ‘ZiG’ 출시

짐바브웨가 25년째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탈피하고자 새 금본위 통화를 출시했다. 6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짐바브웨 금’을 뜻하는 새로운 통화인 ZiG를 출시했다.

존 무샤야바누 중앙은행 총재는 “ZiG는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로 책정될 것”이라며 “새 통화는 즉시 출시될 것이고, 은행들은 기존 잔고를 ZiG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짐바브웨는 20년 넘도록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려 왔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던 2008년 중앙은행이 10조 짐바브웨달러 어치의 지폐를 발행하면서 시장의 신뢰도 잃었다. 이후 당국은 자국 통화를 폐지하고 한동안 미국 달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와 같은 외국 지폐에 의존했다.

2016년 다시 자국 통화를 꺼내 들었지만, 지나친 발행에 채권 시장이 붕괴하면

서 이마저도 실패로 끝났다.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RTGS는 2019년 새로 마련된 통화인데, 이 역시 통화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금값을 기반으로 둔 통화로 바뀌게 됐다.

특히 올해는 옥수수 작물 절반을 파괴한 심각한 가뭄과 인플레이션 영향이 중앙은행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3월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율은 55%에 달하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달러화 대비 RTGS 가치는 올해 공식 외환시장에서 80% 가까이 하락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위기를 기회로... 자산 10배 불린 '경영의 달인' 최태원

(1998년 32.8조 → 2023년 327.3조)

창립 71주년 맞은 SK그룹

재계 만형, ESG 전도사, 경영 혁신의 마법사, 행복 경영의 달인, 승부사, 독심, 나침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식이다.

8일 창립 71주년을 맞는 SK그룹의 선장인 최태원 회장은 고려대와 시카고대에서 공부한 후 1992년 선경 경영기획실 부장으로 경영에 처음 참여했다. 1998년 8월 최종현 선대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그해 9월 38세 어린 나이에 그룹 수장으로 경영 최일선에 나섰다.

이때는 외환위기(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수십 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대기업들마저 흔들리고 무너지던 시기였다. 에너지, 화학 산업 중심의 SK그룹 역시 에너지 수요 감소와 유동성 문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매출은 37조 원에 달했으나 순이익은 1000억 원에도 못 미쳤으며, 부채비율은 500%에 육박했다.

경영자로서 첫 과제는 생존 위기의 그룹을 구조하는 일이었다. 당시 이진희 삼성그룹 회장,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경영 9년 대선배들도 버거워했던 경영 환경 속에 젊은 청년 최태원 회장의 경영이 시작됐다.

약 2만 5000명의 구성원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SK를 글로벌 초대형 그룹으로 도약을 이끌 수 있었던 원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경영 철학에 있었다. 그는 위기에도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룹 전체가 역동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2003년 소비민발(發) 경영권 위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유럽 디폴트, 2020년 코로나 확산 등 대규모 위기 속에서 되레 전 직원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독려하며, 그룹 사업 구조를 과감하게 재편했다. 이 과정에서 SK가



어린 나이 38세에 경영 최일선 당시 외환위기로 부채비율 급증 하이닉스 인수 등 과감한 행보 재계 순위 5위에서 2위로 도약 배터리·바이오·반도체 핵심 육성 혁신 추구·토론 문화도 계속

그룹은 정유, 통신 중심에서 반도체, 소재, 그린, 디지털, 바이오 등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추며 재계 2위로 도약했다.

최 회장이 SK를 이끈 이후 SK그룹 자산은 1998년 32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5월 327조3000억 원으로 약 10배 증가하고, 매출은 37조 4000억 원에서 224조 2000억 원으로 약 6배 늘었다. 같은 기간 SK 재계 순위는 5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으며, 그룹 시가총액도 3조8000억 원에서

137조3000억 원으로 무려 36배 증가했다. SK 임직원도 약 2만4000명에서 12만6000명으로 약 5배 많아졌다.

SK그룹 성장은 하이닉스 인수와 반도체 소재 산업 집중, 바이오·배터리 등 미래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최 회장의 결단으로 가능했다는 평가다. 특히 SK하이닉스 인수는 최 회장의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하이닉스가 SK가족이 되기까지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계속된 적자와 워크아웃으로 인해 2009년 매물로 나온 하이닉스는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중도 포기하며 2차례 인수가 불발됐으며, 2011년 3분기, 4분기 누적 약 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전망이 밝지 않았다. 그러나 최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반도체 치킨 게임의 종식과 모바일 성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을 예측하고, 채권단 10년을 견뎌낸 하이닉스

의 '치열한 생존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국내외 대기업조각인수합병(M&A)에 실패한 경험이 무수한 만큼 그는 실행에 앞서 체계적인 준비와 다각도의 분석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성공 가능성을 최대치까지 높여 인수를 진행한다고 알려졌다.

미래에 대한 구상이 끝났다면 빠르고 과감하게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것도 최 회장의 경영 방식이다. 다른 반도체 기업이 투자를 모두 줄일 때 그는 SK하이닉스의 투자를 전년(2011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3조 85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연구개발비 또한 2011년 8340억 원에서 2013년에 1조 원 수준으로 늘리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하며, 하이닉스가 반도체 치킨게임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최 회장은 미래 전략가로서

국가전략산업인 배터리(Battery), 바이오(Bio), 반도체(Chip) 등 이른바 'BBC'를 십년지계 핵심 사업으로 육성 중이다.

재계 만형인 최 회장은 국내 4대 그룹 경제인 중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맡아 정부와 재계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최 회장은 국가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SK그룹의 성장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마·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여러 차례 경험하며, 국가 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시각이 확고해졌다. 아울러 최 회장은 국내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이 널리 퍼지지 않은 이른 시기부터 재무 가치만큼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며 이른 시기 ESG 경영을 국내에 도입한 바 있다.

최태원 회장은 토론을 중시하는 경영자로도 알려져 있다. 1998년 취임 이후 매년 10월 SK그룹 최고경영자(CEO) 세미나를 개최하며 경영 화두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매년 6월 주요 경영진이 모여 그룹의 비전과 경영 현황을 논의하는 확대경영회의를 연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나침반'이란 이미지도 얻었다. 평소 묵묵하지만 구성원들과 토론할 때는 몇 시간이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의 스타일을 빗대어 나오는 말이다. SK만의 토론 문화는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 회장은 독심과 집념의 경영자이기도 하다. 한번 시작한 일이 성과가 날 때까지 구성원을 믿고 추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를 나타내는 일화는 선대회장을 이어 35년간 독심 있게 진행해온 바이오 사업이다. 신약개발은 통상 수십 년의 기간과 수천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고도 성공률이 0.1%에 불과한 어려운 영역으로 불린다. 연구 전문성은 기본이고, 경영진의 흔들림 없는 육성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분야다.

송영록 기자 syr@

50+세대 고품격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4월호 발매



- PART 1 다시 생각해야 할 '어른'의 의미
- PART 2 존경받는 어른,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존재!
- PART 3 세대 갈등 10년의 변화 들여다보니
- PART 4 시대 연구자 3인, 이 시대 어른을 말하다
- PART 5 유난무브먼트 "어른 될은 성숙한 시민성 아닐까요"
- PART 6 김수환-이여령, 그들은 왜 추앙받았나
- PART 7 '교감과 통찰 기르기' 어른이 공부하는 이유

BRAVO INTERVIEW



시인 나태주
"비운 낙엽 태우면 고수운 땀새나"



박이주 커피 명장
커피에 미(美)쳐 조연을 자처하다



레시피
주꾸미볶음과
봄나물튀김
법률 가이드
결혼으로 인한
세금 해법은?

브라보 여행
하늘도시 영종과
여행의 아이콘 김찬삼



하방비책
유튜브 운동법,
무작정 따라 하면 안되는
세 가지 이유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2024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 페럼클럽
04. 25 (목) - 04. 28 (일)



우리금융챔피언십
티켓 이벤트 바로가기

SBS Golf 2 생중계 채널번호 안내

GENIE TV
62

Btv
972

U+ tv
99

skylife
219

주최 | 우리금융그룹

주관 | KPGA 한국프로골프투어
KOREA PROFESSIONAL GOLF TOUR

방송 | SBS Golf 2

교체 사이클 맞은 전력기기 업체… AI 수요 확대 ‘겁경사’

북미 30년 만에 교체 주기 맞고
빅테크 데이터센터 건설 앞다퉀
중동도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
현대일렉·효성중 등 실적 ‘미소’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국내 전력기기 생산 업체들의 수익성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대·교체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전력기기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영향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

작된 전 세계적인 전력기기 수요 증가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북미 지역은 약 30년 주기로 돌아오는 전력기기 교체 시기와 AI 기술 수요 확산이 겹치며 변압기 등 전력기기 수요가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2022년부터 중국산 전력기기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며 국내 변압기 생산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AI 기술 수요 확대는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며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매출 및 공급처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2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된 전력이 460 테라와트시(TWh)였지만, 2026년에는 620~1050TWh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050TWh는 일본의 1년 전체 전력 수요와 비슷한 규모다.

이미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IT) 업체들은 신규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계획들을 속속 밝히고 있다. 1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초대형 슈퍼컴퓨터를 갖춘 10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내놴다. 아마존, 애플, 구글 등 다른 미국 IT 회사들 역시 새로운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국내 전력기

기 업체들은 공장 증설을 통해 생산량 증가에 나섰다. HD현대일렉트릭은 2020년 800억 원 규모의 울산 변압기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으며, 미국 앨라배마 변압기 공장에 180억 원을 들여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2019년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미쓰비시사의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4650만 달러에 인수 및 증설했다.

중동 지역에서의 전력기기 수요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중동 지역은 2020년 전까지 매출이 지속 감소했지만, 2021년 이후 인프라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전력기기 수요도 함께 늘어났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국가 중

전력기기 수요가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네옴시티 등 도시 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전력기기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사우디 국방부는 AI 사업 육성을 위해 400억 달러 규모의 기술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전력기기 수요가 최소 내후년까지는 지속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초고압 변압기 등 전력기기 시장이 지속 우호적이고, 유럽에서도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전력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내후년까지 국내 업체들의 수출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한화로보틱스 찾은 김승연 회장… “로봇시장 선도할 혁신기술 개발해 달라”

김 회장 “로봇과 협업은 시대적 흐름”
차별화된 혁신기술 개발 독려하며
파이브가이즈 햄버거로 오찬 소통

“로봇산업 글로벌 선도 기업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어갑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5일 경기 성남시의 한화로보틱스 본사를 방문해 남긴 방명록 글이다.

7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5일 한화로보틱스 본사를 찾아 로봇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김 회장은 신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연구 현장에 한참 머물며 실무진과 기술 현황, 미래 로봇산업 전망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이 직접 사업장을 찾은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를 방문하며 약 5년 4개월 만에 현



김승연(오른쪽 두 번째) 한화그룹 회장이 5일 경기 성남시 한화로보틱스 본사를 찾아 협동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그룹

장 경영에 나선 바 있다. 이날 현장에는 한화로보틱스의 전략 기획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김동선 부사장도 함께했다.

김 회장이 한화로보틱스 본사를 찾은 건 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로봇 사업에 힘을 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

다.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한화로보틱스는 2017년 주력 제품인 협동로봇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김 회장은 “사람과 로봇의 협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혁신기술을 지속해서 개발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룹 내 로봇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한 김 회장은 “로봇은 우리 그룹의 중요한 최첨단 산업”이라며 “그룹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역할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며 힘을 실어줬다.

현장 곳곳을 둘러본 김 회장은 이날 직원 간담회 대신 20~30대 MZ 직원들과 햄버거를 먹으며 1시간 가까이 격의 없는 소통을 했다. 이날 식탁에 오른 버거는 김 부사장이 주도해 지난해 6월 국내에 선보인 ‘파이브가이즈’였다. “훗날 전국 곳곳의 무인 주방에서 한화가 만든 로봇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한 30대 연구원의 말에 김 회장은 “꼭 그렇게 해달라. 기대하겠다”고 화답했다.

식사 후 직원들의 사인 요청에 김 회장은 흔쾌히 펜을 들었다. 한화이글스 유니폼에 사인을 부탁하는가 하면 들고 있던 휴대전화에 곧바로 사인해달라는 직원도 있었다. 햄버거 오찬을 함께한 허지는 연구원은 “연구실 곳곳을 일일이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신 부분이 실무자로서 무척 인상 깊었다”며 “한화로보틱스가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故조양호 5주기… 대한항공, 글로벌 10위 항공사 눈앞

조원태 회장 등 오늘 용인서 추모식
아시아나 합병 승인 이제 美만 남아
EU 승인 조건 시행 등 연내 마무리

고(故) 조양호(사진)한진그룹 회장이 서거한 지 8일부로 5년을 맞는다. 아들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을 이어받은 대한항공은 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하고 세계 10위권의 ‘메가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8일 조양호 선대회장의 5주기를 맞아 경기 용인시 선영에서 추모식을 연다. 이 자리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민 한진 사장 등 가족과 그룹사 임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 외부 행사는 치르지 않는다.

조양호 회장은 1949년 한진그룹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2003년 한진그룹 회장에 오른 그는 오대양 육대주를 아우르는 노선을 구축하며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할 토대



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회장은 2019년 4월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조양호 회장이 별세한 후 같은 달 24일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됐다. 조 회장은 취임 직후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영권 분쟁 등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회장은 지난해 세계적인 항공 전문매체 에어트랜스포트 월드(ATW)가 선정한 ‘올해의 항공업계 리더’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집행위원회 위원, 글로벌 항공동맹체 스카이팀의 이사회 의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항공업계의 핵심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조원태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라는 승부수를 띄우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4년째로 접어든 두 항공사의 결합 여정은 이제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2월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던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얻었다. 필수 신고국 14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 안에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 연내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등 EU 경쟁당국의 승인 조건이 따르는 만큼 조 회장에게는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조원태 회장은 지난달 대한항공 창립 55주년을 맞아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의의 순간부터 매서운 겨울이 닥쳤지만 튼튼한 나무는 겨울이 길수록 안으로 더 튼튼한 나이트와 단단한 무늬를 만든다”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항공사를 정성껏 가꾸면 곧 글로벌 항공업계의 아름드리나무로 자랄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방경만 KT&G 신임 사장 ‘글로벌 경영’ 전격임

해외 매출 비중 50%로 확대 목표
취임 첫날부터 경영회의·조직개편

방경만 KT&G 사장이 선임 직후 지체 없이 경영활동에 돌입,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취임 당일 경영회의를 주재한 직후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국내 영업현장도 방문했다.

7일 KT&G에 따르면 방 사장은 최근 경영계약을 체결한 직후 중장기 비전 ‘글로벌 톱티어’를 향한 경영활동에 나섰다. 방 사장은 지난달 28일 경영회의에서 ‘3대 핵심사업(해외권련·전자담배·건강기능식품)’ 구조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KT&G 그룹 트랜스포메이션’을 내걸었다. 이어 2027년까지 연매출 10조 원의 ‘글로벌 톱티어’ 기업 도약을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방 사장은 글로벌 톱티어 기업 도약을 위해 현재 35% 수준인 글로벌 매출 비중을 2027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7년까지 3조 원 이상의 설비투



지난달 29일 경영계약을 체결한 방경만(왼쪽) KT&G 사장. 사진제공 KT&G

자(CAPEX)로 글로벌 사업에 힘을 싣는다. KT&G는 작년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 신공장 설립의 청사진을 밝혔고, 올해 초 튀르키예에 공장 설비 증설 추진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공장은 2025년, 인도네시아 공장은 2026년 각각 가동이 목표다.

방 사장은 ‘글로벌 조직 확대’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취임 즉시 단행했다. 해외 권역별 본부에 부사장급 임원을 전진 배치하고 기존 아태본부와 유라시아본부 등 관련 조직을 사내 독립기업(CIC)체제로 전환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비상하는 삼성·SK하이닉스… AI반도체 투자경쟁 속도전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 총력

기나긴 암흑 터널을 지나온 반도체 업계에 드디어 훈풍이 불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작년 1분기 적자를 낸 후 1년만인 올해 1분기 흑자를 회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SK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 흑자 전환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이어가며 인공지능(AI) 시대 빅테크 선두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11조9850억 원, 영업이익 1조5056억 원이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은 136% 급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작년 4분기 영업이익(3460억 원)의 4배를 훌쩍 넘겼다.

백길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은 재차 개선될 것으로 전

SK 1분기 매출 전년비 2.3배↑

영업이익 1.5兆 흑자전환 전망

삼성엔 작년 연간 영업이익 넘어

반도체 감산, 실적호조로 연결

삼성 美반도체 투자 규모 두배

SK는 美에 해외 첫 HBM공장

망한다”면서 “메모리반도체 공급 개선 효과가 본격화되며 메모리 가격 상승 폭은 전분기 대비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5일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매출 71조 원, 영업이익 6조6000억 원을 올렸다. 매출은 5개 분기 만에 70조 원대를 회복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931.3% 뛰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6조5700억 원)을 넘었다. 증권가 컨센서스인 5조4000억 원을 22.2%나 넘어선 수치다. 증권업계는 깜짝 실적의 대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공장 전경.

연합뉴스

부분이 DS(반도체) 부문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고, 이날 오후 DS부문 영업이익 전망치를 평균 4000억 원 수준에서 1조6000억~1조9000억 원으로 높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실적 호조의 가장 큰 배경은 감산 효과다. 시장 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 용 범용 D램 제품(DDR4 8Gb)의 고정

가격은 지난해 9월 1.30달러로 바닥을 찍고 10월부터 반등을 시작해 올해 3월 기준 1.8달러로 회복했다. 낸드도 AI 관련 수요 증가에 따라 지지개를 켜고 있다. AI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낸드 가격 상승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I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두 회사의 투자 경쟁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미국 텍사스주에 대한 반도체 투자 규모를 기존 170억 달러(약 23조 원)에서 2배 이상 늘려 440억 달러(약 59조6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3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2028년까지 공장을 짓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메모리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2000억 원)를 투자한다. SK하이닉스가 해외에서 HBM의 생산 공장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발 공급망 재편이 거세지면서 미국 내 투자 유인책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와 미국 등 해외 투자 투트랙 전략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1분기 실적부진 K-배터리… 투자는 멈추지 않는다

작년부터 불어닥친 전기차 수요 둔화 여파로 올해 1분기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바닥을 다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배터리 업계는 투자를 멈추지 않고 시장 주도권을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배터리 업계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5일 올해 1분기 매출액 6조1287억 원, 영업이익은 157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9.9%, 영업이익은 75.2% 감소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

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세제 혜택은 1889억 원이다. 이를 제외하면 316억 원 적자다. 업계에서는 유럽 내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폴란드 공장 가동률이 50%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한다.

SK온은 올해 1분기 적게는 1000억 원대에서 많게는 50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북미와 유럽 내 출하량이 작년 4분기 대비 20%가량 감소했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북미·유럽 고객사 수요 성장 둔화로 출하량이 전 분기 대비 21% 하락하고, 이에 따라 AMPC도 전 분기보다 58% 줄어든 1017억 원으로 급감이 예상된다”며

배터리 3사, 전기차 캐즘에
전년비 영업이익 급감 불가피

24.5兆 규모 시설투자 공세
하반기 수요회복 대비 나서

“유럽 신규 공장도 당분간 가동이 시작되며 초기 고정비 부담이 크게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SDI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1% 감소한 2212억 원으로 예상된다. 중대형전지의 경우 고객사 물량은 증가했지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며 판매 가격이 전 분기 대비 10%

하락했다. 또한 전동공구 수요 약세로 소형전지의 부진도 길어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상황이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3사의 올해 시설투자액(CAPEX)은 모두 합쳐 24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총 7조2000억 원을 투자하는 원통형·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 배터리 생산 공장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총 생산능력은 53기가와트시(GWh)로, 2026년 가동이 목표다.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 2공장도 이달부터 가

동을 시작했다.

삼성SDI는 미국에 배터리 단독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독자 진출에 선을 그어온 삼성SDI지만, 미래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SK온은 상반기 중국과 헝가리 신규 공장 가동을 시작한다. 포드, 현대차그룹과 북미에서 각각 짓고 있는 합작 공장 3곳도 내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배터리 업계 실적은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분기부터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출시가 예정돼 있고, 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는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전기차 가격 경쟁 효과가 나타나며 전기차 수요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삼성전자 모델들이 디자인부터 갤럭시 AI 연결 경험까지 전면 업그레이드된 ‘삼성 올인원 Pro’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사용·편의성 다 갖춘 일체형 PC ‘삼성 올인원 프로’

삼성전자는 사용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일체형 PC ‘삼성 올인원 프로(Pro)’를 8일 삼성닷컴에서 공개하고, 구매 사전 알림 신청을 진행한다. 판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삼성 올인원 Pro’는 울트라 슬림 디자인에 6.5mm 두께의 얇은 스탠드를 적용해, 공간을 더욱 넓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Intel

Core™ Ultra Processor)는 보다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한다. 전작 대비 약 13% 넓어진 68.6cm의 4K 디스플레이와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의 3D 사운드 스피커는 게임,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스마트폰의 고화질 카메라를 PC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은 199만 원부터 시작된다.

송영록 기자 syr@

SKC 생분해 소재 투자사 에코밴스, ‘SK리비오’ 새 출발

이사회 열고 사명 변경 안건 의결
상반기 베트남 PBAT 생산공장

SKC의 생분해 소재사업 투자사인 에코밴스가 ‘SK리비오(SK leaveo)’로 사명을 변경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다.

7일 SKC에 따르면 SK리비오는 5일 이사회를 열고 사명 변경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새 사명은 ‘자연에서 분해되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leave zero)’는 생분해 소재 비즈니스 모델(BM)의 핵심 가치를 담았다. SK리비오는 신사명과 연계한 새로운 슬로건 ‘We leave zero’도 공개했다. SK리비오는 올해 상반기 중 베트남 하이퐁시에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7만 톤 규모의 생분해성수지(PBAT) 생산공장을 착공한다. 하이퐁시는 베트남 제1의 항구도시이자 핵심 산업도시로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필요 전력을 모두 충당하는 ‘RE100’ 달성도 가능해 생산 공정에서부터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다.

SKC는 PBAT의 응용범위를 확장하



SK리비오 구성원들이 새로운 C와 슬로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SKC

기위해 나무로부터 추출한 나노셀룰로스를 보강재로 활용, 강도를 일반 플라스틱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농업용, 포장용 필름이나 각종 소비재 용기는 물론 기저귀, 생리대 등 위생재와 필터의 소재인 부직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SKC의 생분해 라이멕스(LIMEX) 소재사업 투자사인 SK티비엠지오스톤의 생산 시설도 함께 하이퐁시에 들어선다. 생분해 라이멕스는 천연 무기물인 석회석에 일반 플라스틱 대신 생분해 수지인

PBAT를 혼합한 친환경 신소재다. 베트남의 풍부한 석회석 매장량에 SK리비오와의 시너지로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SK리비오 관계자는 “새로운 사명으로 생분해 소재사업의 의미와 비전을 더 명확히 드러냈다”며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고부가 소재 제품을 양산하며 친환경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디지털 메일룸 서비스>

“올 디포스트 150여개 확보… 매출 200%·손익분기점 목표”

탐방기UP

디버

기업물류 디지털화 스타트업

“올해는 디포스트 지점을 150여 개소까지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년 대비 연 매출 200% 신장 및 연내 손익분기점(BEP)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일 장승래 디버 대표는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 경영 목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디버는 2019년 쿵 배송 플랫폼 디버(dver)를 시작으로, 디지털 메일룸 서비스 디포스트(DPOST)까지 신규 서비스 발굴 및 확대를 통해 기업 물류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장 대표가 LG유플러스 재직 당시 회사에서 다른 부서나 현장에 빠르게 물건을 보내기 위해 업무용 쿵 서비스를 자주 이용했었는데, 그때 경험한 불편한 점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사용자 관점에서 고민하게 된 것이 서비스 개발의 시초가

2019년 LG U+ 사내벤처 1기 창업

7000여 법인·개인사업자 서비스

클라우드 소싱 배송원만으로 제공

중기부 ‘아기유니콘 기업’ 선정

연평균 40% 성장… 100배 ‘쑥’

됐다.

LG유플러스 사내벤처 1기로서 창업 첫 단계부터 막힘없이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주변 시선과는 달리 사업은 초기부터 쉽지 않았다. 장 대표는 “사내벤처라 초기부터 LG유플러스 투자금을 통해 쉽게 사업을 시작했을 것이라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창업을 결심하고 퇴사를 했는데 투자를 하나도 받지 못해서 막막했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다행히 주변 지인과 동료들이 저를 믿고 초기 투자에 참여해 주셨다. 적지 않은 투자금이었는데 선뜻 참여해 주신 덕분에 위기를 넘길



장승래(오른쪽) 디버 대표와 디버 앱 화면(왼쪽 위). 왼쪽 아래는 KDB생명타워 디포스트 모습.

사진제공 디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 사내벤처라는 타이틀을 앞세우는 것도 제한은 있었다. 디버의 고객사가 LG 계열사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내벤처 출신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자칫 다른 기업 영업에 불



리하게 적용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장 대표는 타이틀을 내세우기보다는 서비스 차별화를 두고 디버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이 주효해 창업 당시 3명의 동료와 시작한 디버는 현재 임직원 수가 80여 명까지 늘었다. 전국 약 6만 명의 배송 파트너들이 활동 중이며 7000여 법인 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사육과 프리미엄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인 디포스트는 4월 기준 70여 개소를 운영 중이다. 하이브, LG유플러스, LG씨엔에스 등 메일룸 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기업 고객과 KDB생명타워, 페럼타워, 아셈타워 등 프리미엄 빌딩의 입주 기업이 주요 고객층이다.

현재 라스트마일 시장에서 직고용 배송원이 단 한 명도 없이, 클라우드 소싱 배송원만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식음료 및 기업 물류 영역에서 다양하게 있다. 다만, 디버가 운영 중인 두 가지 서

비스 디버와 디포스트처럼 라스트마일 배송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의 물류 허브인 메일룸이 끊어짐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디지털 물류 서비스는 디버가 글로벌 기준으로도 유일하며, 대부분의 라스트마일 시장이 기업시장(B2B)임을 볼 때 디버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장 대표는 말한다. 이런 경쟁력을 인정받아 디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아기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디버의 경쟁력과 성장세는 숫자로도 입증된다. 디버는 매출 기준 창업 첫해부터 5년째인 2023년까지 100배가량 성장해 70억 원을 초과했다. 회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2020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40%에 이른다.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유치도 논의 중이다. 디버는 2023년 우리금융캐피탈 및 코메스인베스트먼트 등에서 3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브릿지 투자를 유치하면서 누계 75억 원의 투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마일마일 시장 진출과 건물 내 물류 로봇 개발을 진행하는 파트너십을 위해 전략적 투자자(SI)를 포함한 여러 벤처캐피탈(VC)과 시리즈B 투자를 준비 중이다.

장 대표는 마지막으로 디버의 존재 의미를 ‘Grow together’로 정의했다. 그는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우리와 협력하는 기업, 우리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 기업을 모두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과거 디지털 혁명이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없애는 지구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물류의 거리를 없애 고객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고, 모두가 이 가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여성 건강에 진심이기에 한화손해보험이 차병원과 함께합니다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 (무배당)

여성의 건강을 제대로 알아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니가
여성 생애 주기에 맞춰
세심하게 보장합니다
(특약 가입 시)



자세히 알아보기



신규 보장 및 서비스 배타적 사용권 획득 (3개월, 24년 01월 23일부터 적용)

유방암(수용체타입) 진단비(특약) | 출산 장려 가입력 보존 서비스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합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 1년입니다.
<http://www.hwgeneralins.com>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14903호(2024.01.29)

쉽고 편하게 바로 상담받기 1833-7667

한화손해보험

글로벌 가구 공룡기업 ‘이케아’ 2년째 역성장

‘팝업·배송비·가격인하’ 카드 통할까

日 ‘니토리’ 한국 상륙 탓 경쟁 격화

글로벌 가구 공룡 기업 이케아가 가격 인하와 팝업스토어 확대, 배송비 개편 등의 카드를 잇달아 꺼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과 달리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국내 시장에서 2년 연속 실적이 악화한 데다 최근 ‘일본의 이케아’로 불리는 경쟁업체 니토리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케아 코리아는 최근 가구 배송비를 제품 무게에 따라 세분화하는 배송비 개편을 단행했다. 25kg 미만 1만 원, 300kg 미만 3만 원, 600kg 미만 5만 원, 1000kg 미만 7만 원의 배송비가 전 지역에 적용된다.

기존 부피 5㎥ 기준으로 수도권 및 부산 2만9000원, 그 외 지역에 3만9000원을 적용한 것과 비교하면 최저 배송비가 2만9000원에서 1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수도권 및 부산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을 보장하는 우선 배송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케아가 제품 가격 인하와 배송비 개편에 나선 것은 지난 2년간 성장이 크게 둔화하면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



더현대 서울에 조성된 이케아 팝업스토어.

사진제공 이케아

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일본 이케아로 불리는 니토리가 한국에 진출해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이케아의 경쟁력 강화 정책에 불을 붙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니토리는 지난해 11월 국내 시장에 진출한 뒤 공격적으로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 이마트 하월곡점에서 1호점을 연 데 이어 3개월만인 2월 홈플러스 영등포점에 2호점을 열었다. 니토리는 앞으로 서울 가양, 인천 연수, 경기 화성 등에서 접근성이 높은 대형마트에 잇달아 매장을 열 계획이다. 2032년까지 200개 매장을 여는 것이 목표다.

이케아는 최근 팝업스토어 운영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대구 더현대에서 팝업스토어를 연 데 이어 올해는 더현대 서울에도 팝업스토어를 조성하며 소비자 접점을 키우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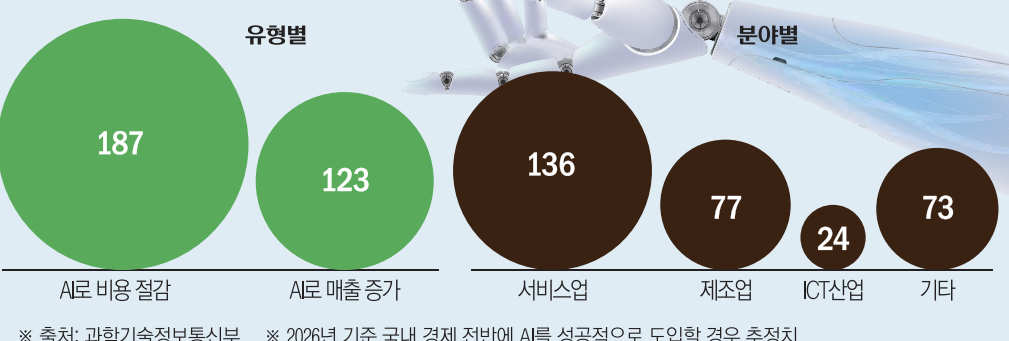
‘AI 중심’ 경영 돌입

네카오 조직개편



- 기술 전 영역에 AI 도입
- 5개 사내독립기업(CIC), 12개 전문 조직으로 전환
- 치지직, 밴드, 뮤직 셀(Cell) 조직 운영
- 최수연 대표 직속 3개 의사결정기구 신설
- 직책 'C레벨'→ 성과리더→ 리더'로 간소화
- AI 통합 조직 신설. 이상호 전 SKT CTO, 최고AI책임자로 선임
- CTO조직 중심 R&D 기술 결집
- 커머스CIC 흡수, 다음CIC를 콘텐츠 CIC로 변경

AI 도입 시 경제 효과 (단위: 조원)



“AI 시대 우리가 이끈다” 조직개편 나선 네카오

“年 310조 경제효과 창출” 막 오른 ‘AI 솔루션 경쟁’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섰다. 양사는 인공지능(AI) 시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최근 5개의 사내독립기업(CIC)을 폐지하고, 12개의 전문 조직으로 전환했다. 전사에 AI를 도입하겠다는 목표 아래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탈바꿈한 것이다. 최대표는 전 직원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통해 “사업 영역 간의 경계가 다시 한번 허물어지고 있는 인터넷 환경과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전사 차원의 전략으로 대응하고자 개편한다”며 “최근 9년간 네이버를 성장시켜온 CIC 중심의 체계도 한 변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새 전문조직은 크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기술 혁신을 창출한 개발과 설계 중심의 프로젝트&플랫폼 영역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서비스 매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비즈니스&서비스 영역 △사용자 니즈에 맞는 콘텐츠 유형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콘텐츠 영역이다. 단, 치지직, 밴드, 뮤직 서비스 등은 독립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셀(Cell) 조직으로 운영된다.

취임 3년차에 접어든 최대표는 대표 직속 의사결정기구를 신설해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인다. 이번에 신설된 글로벌경영, 프로젝트&테크, 임직원성장 등 팀네이버 차원의 3개 위원회는 네이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최대표는 “기술, 사업, 서비스, 콘텐츠 등 전 영역을 모두 나누어 각 영역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인사이트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위계를 최소화하고 평평하게 펼친 조직구성으로 개

편한 만큼, 조직간 활발한 토론과 다양한 협업이 어느때보다 더 중요해졌다”며 “이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유, 활발한 협업이 전사 및 팀네이버 차원에서 더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하는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역시 AI 기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했다. AI 통합 조직을 만들어 기존 전사에 흩어져있던 AI 관련 팀을 하나로 모았다. 최고AI책임자에는 이상호 전 SKT 최고기술책임자(STO)를 선임했다. 또 카카오는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CTO 조직을 중심으로 기

네이버, 9년간 이끌어온 5개 CIC 폐지
12개 전문 조직 전환... 전사에 AI 도입
카카오, 흩어진 AI 관련팀 하나로 통합
CIC 체계 일부 개편... 플랫폼 역량 UP

술 역량을 모은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또 “빠르고 명확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했다. 기존의 ‘C레벨, 부문장, 실장, 팀장, 파트장, 셀장’ 순서의 직책 구조를 ‘C레벨, 성과리더, 리더’로 탈바꿈했다. 새로운 체계에 맞게 C레벨과 성과리더, 리더의 인사도 단행했다.

카카오도 CIC 체계도 일부 개편했다. 플랫폼 사업 역량을 극대화하고, 고객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다. 커머스CIC는 해체해 카카오가 흡수한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CIC는 콘텐츠 CIC로 조직명을 바꾸고, 카카오 전사의 콘텐츠 중심 서비스를 담당한다.

임유진 기자 newjean@

기업용 생성형 인공지능(AI) 솔루션이 앞다퉀 등장하면서, 산업 전 분야에서 ‘AI 솔루션 경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기업 계열사부터 중견 시스템 통합(SI) 기업, 이동 통신사까지 각 산업 분야에서 생성형 AI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생성형 AI 서비스 패브릭스와 브리티코 파일럿을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삼성SDS는 최근 서울 잠실 SKY31컨벤션에서 ‘제조기업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위한 Gen AI 데이’를 열고 제조업 기업 고

대기업 계열사부터 이동 통신사까지
생성형 AI 솔루션 플랫폼 기술 선포
실시간 번역·가계운영 등 적용 다양
각 산업 분야 차세대 먹거리로 각광

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소개했다.

패브릭스(FabriX)는 기업용 AI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개인이 직접 템플릿을 제작할 수 있어 사용자가 기업의 특성이나 업무 성향 등에 따라 최적화된 템플릿을 제작할 수 있다. 브리티 코파일럿(Brity Copilot)은 AI 기반 기업용 협업 솔루션으로, 실시간 번역 및 문서 작성 등 업무에 필요한 수많은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제공한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찾아왔다. 삼성SDS와 자회사엠로는 직접 기업 고객 대상으로 1:1 상담 부스를 열고 솔루션 관련 상담도 진행했다. 박창홍 삼성SDS 상무는 “생성형 AI(Gen AI)부터 전사적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RM)·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까지 소개했다”면서 “(고객) 여러분들과 좀 더 친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이런 행사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SI 기업들은 앞다퉀 생성형 AI 솔루션을 선보이며 기업 고객을 공략하고 있다. LG CNS는 지난해 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인 ‘DAP 젠(Gen) AI’를 선보인 바 있다. SK C&C는 지난 달 직무별로 특화된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AI 솔루션 ‘솔루어(Solur)’를 발표했다.

중견 SI 기업도 기업 고객을 위한 AI 기반 솔루션을 선보였다. 파수는 최근 기업용 경량거대언어모델(sLLM) ‘파수 ELLM(파수 엔터프라이즈 LLM)’을 출시하고 3일 ‘파수 디지털 인텔리전스 2024’ 행사에서 선보였다. sLLM이란 경량 언어모델로, 말 그대로 LLM을 경량화한 모델을 말한다. 크기가 작고 유지를 위한 컴퓨팅 자원 및 비용이 적게 든다.

생성형 AI 솔루션은 특정 기업과 산업군에 국한되지 않는다. LG U+는 최근 소상공인 위한 ‘우리가게패키지 AX 솔루션’ 솔루션을 선보이고 2027년까지 누적 매출액 2000억 원을 달성해 차세대 먹거리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운영 가게 전화, 웨이팅, 키오스크 등 가게 운영 전반을 AI 기술을 적용 디지털화한 솔루션이다.

정부는 산업 전 분야에서 AI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상당한 경제 효과가 창출될 거라 기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제조·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2026년 기준 연간 310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유리 기자 inglass@

“반려견과 함께 비행기 탑승 꿈만 같아요”

LGU+ ‘반려견 항공상품’ 완판
반려견 57마리, 주인과 제주행

LG유플러스가 반려가구 커뮤니티 플랫폼 ‘포동’을 통해 선보인 반려견 동반 전세기상품을 판매 시작 일주일 만에 ‘완판(완전 판매)’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7월 출시한 포동은 현재 약 46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대표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이다.

LG유플러스는 제주항공,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달 27일 반려견 동반 김포·제주 왕복 항공 상품인 ‘포동 전세기’ 상품을 공개했다. 보호자 2인과 반려견 1마

리를 포함해 총 3석으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이다.

지난 5일 상품 구매자와 반려견 57마리가 주인과 나란히 앉아 제주도로 출발했다. 반려견 57마리 탑승은 역대 최대 규모다. 제주로 여행을 떠난 반려견들은 주인과 함께 8일 김포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포동 전세기에서는 기내에서 다른 승객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반려견 바로 옆좌석에 동반 탑승할 수 있다. 일반적인 항공기의 경우 반려견과 동반 탑승한 승객들은 비행시간 동안 반려견을 케이지에 넣어 좌석 아래 구석에 두어야 했다. 한 탑승객은 “옆에 앉은 반려견과 눈을 마주치며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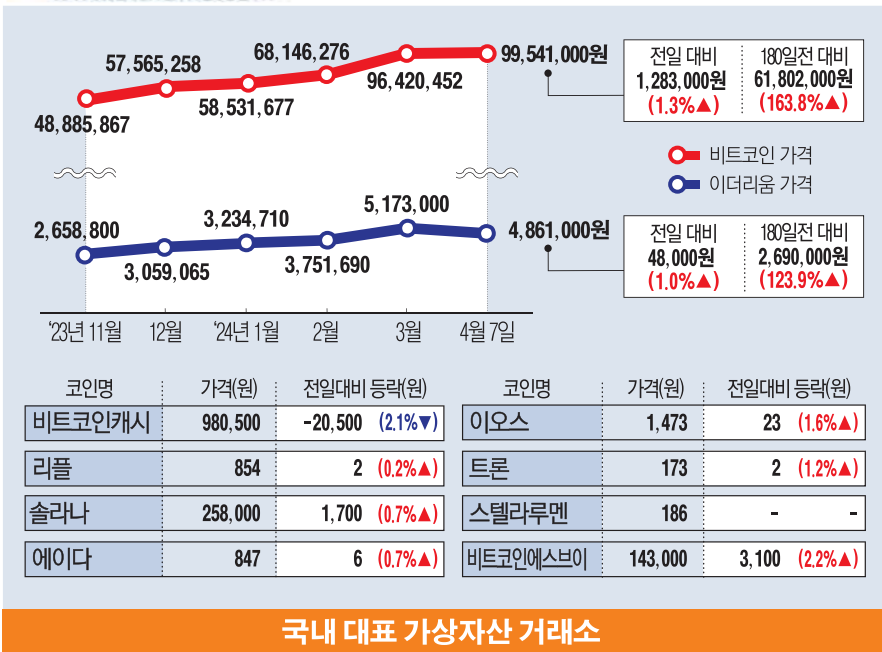
하니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기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포동 전세기에는 비상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포동의 자문수 의사로 활동하는 서울하이동물의료센터의 김지나 원장이 함께 탑승했다. LG유플러스는 포동 전세기 탑승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향후 반려견 동반 전세기 항공 상품 정규화를 검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전세기 외에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근처 녹지대의 ‘펫파크’에서 ‘댕댕 유치원 현장학습’ 콘셉트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빗썸 지수 (2024년 4월 7일 17:00, KST)



“위식도역류치료제 시장, 우리가 접수”… 제약사들 합종연횡

(P-CAB)

대웅제약, 올해부터 종근당 맞손
‘펙수클루’ 판매로 마케팅 시너지 ↑
HK이노엔도 보령과 의기투합
최대품목 영업통해 수익성 강화

1조3000억원 규모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경쟁이 올해 더욱 치열해진다. HK이노엔과 대웅제약이 각각 회사의 대표 품목으로 P-CAB 제제를 육성하면서 시장 내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올해부터 종근당과 손잡고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를 판매한다. 양사는 영업·마케팅 시너지를 극대화해 시장 내 1위를 차지하겠다는 각오다.

종근당은 지난해까지 HK이노엔의 ‘케이캡’을 판매했다. 국산 P-CAB 1호 신약인 케이캡은 2019년 3월 출시돼 프로톤펌프저해제(PPI)가 대세였던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꾼 제품이다.

P-CAB 신약 비교			※ 출처: 각 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케이캡		펙수클루	
테고프라잔	성분	펙수프라잔염산염	
HK이노엔	개발사	대웅제약	
보령	판매 파트너	종근당	
2019년 3월	출시 시기	2022년 7월	
위궤양 등 5개	적응증	위염 등 2개	
36개국	진출 국가	24개국	
1195억원	2023년 매출	554억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종근당의 매출에서 케이캡은 8.2%(1375억 원)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HK이노엔과 결별하면서 고스란히 공석이 될 뻔한 자리로, 펙수클루가 이를 메꾸게 된다.

펙수클루는 출시 첫해인 2022년 매출 167억 원, 지난해 매출 554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웅제약은 케이캡 판매 노하우를 보유한 종근당과 함께 2030년까지 펙수클루의 국내 연 매출 30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케이캡을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만든 HK이노엔은 종근당 대신 보령과 의기투합했다. 보령과의 협력은 일반적인 공동판매가 아닌 HK이노엔의 최대 품목인 케이캡과 보령의 최대 품목인 ‘카나브’를 서로 영업·마케팅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수수료 지출로 훼손될 수 있는 수익성을 강화하고, 외형은 늘리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케이캡 매출은 1195억 원으로 펙수클루 매출의 2배를 넘는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처방실적은 총

5085억 원을 달성했다. 케이캡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의 5가지 적응증을 보유했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염 2가지 적응증만 가진 펙수클루 대비 우위에 서 있다.

HK이노엔은 케이캡의 성장에 힘입어 몸집을 불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케이캡의 매출 비중이 수익제를 뛰어 넘었다. 대웅제약 역시 펙수클루를 1조 원 품목으로

키우는 ‘1품 1조’ 전략의 핵심으로 지목해 P-CAB 신약의 활약이 올해 실적에서 큰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경쟁 관계인 HK이노엔과 대웅제약이지만,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을 P-CAB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는 같다. 원외처방실적 기준 국내 P-CAB 시장 규모는 2000억 원대로, 아직 PPI에 비해 열세여서다.

P-CAB 제제는 PPI와 달리 위산에 의해 활성화될 필요 없이 칼륨 이온과 직접 결합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고, 야간 위산과다분비 현상도 억제한다. 기존 치료제보다 약효 지속 시간이 길다. 이러한 장점은 상대적으로 비싼 약가에도 의료진과 환자들의 선호도를 끌어올렸다.

현재 제일약품의 자회사 온코넵테라퓨틱스가 P-CAB 신약 ‘자스타프라잔’의 품목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자스타프라잔이 가세하면 P-CAB 경쟁은 삼파전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시장 내 P-CAB 제제의 위상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유혜은 기자 euna@

美서 세계 최초 지방간염 치료제 등장… 국내 기업도 개발 속도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던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을 적응증으로 하는 신약이 등장했다. 국내 기업들도 MASH 개발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블루오션에 진입할 다음 주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마드리갈파마슈티컬스의 MASH 치료제 레즈디프라(성분명 레스메티롬)를 승인했다. 전 세계 의약품 당국이 MASH를 적응증으로 하는 신약을 승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MASH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지방간염이다. 식습관이나 비만, 운동부족, 유전 등 다양한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준다. ‘비알코올성 지방간(NASH)’으로 불렸으나, 지난해 미국 간질환연구협회 등에서 명칭 변경을 결의하며 변경됐다. MASH 환자에선 알코올성 지방간과 유사한 증

한미약품, HM15211 임상 진행
유한양행, 혈당 감소 기술 수출
美 동아에스티도 발빠르게 합류

상이 나타나는데, 대사이상으로 간 내 염증과 섬유화로 인한 간경화가 진행된다. 증상이 악화하면 간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간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MASH 치료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체중을 줄이고 혈당을 조절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반면 레즈디프라는 질병 원인을 직접 겨냥해 작용한다. 갑상선 수용체를 활성화해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을 막는 기전이다.

국내 기업도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약품은 ‘HM15211’와 ‘HM12525A’를 개발한다. HM12525A는 글루카곤(GCG),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위역제 폴리펩타이드

MASH 치료제 개발		기전	개발단계
마드리갈파마슈티컬스	레즈디프라	갑상선 수용체 활성화, 간내 과도한 지방축적 억제	FDA 승인
한미약품	HM15211	글루카곤·GLP-1·위역제 폴리펩타이드 삼중작용	2b상 진행중
	HM12525A	글루카곤·GLP-1 이중작용	MSD 기술수출
유한양행	YH25724	GLP-1·FGF21 이중작용	베링거인겔하임 기술수출
뉴로보파마슈티컬스	DA-1241	GPR119에 작용해 인슐린 분비 및 혈당개선	2상 진행중

※ 출처: 각 사

드(GIP)에 삼중작용한다. 한미약품의 독자기술 플랫폼 랩스커버리가 적용됐고, 임상 2b상을 진행 중이다. HM12525A는 GCG와 GLP-1 이중 작용제로, 글로벌 제약사 MSD에 기술수출됐다.

유한양행은 후보물질 ‘YH25724’를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했다. 이 물질은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GLP-1과 혈당 및 중성

지방을 낮추는 섬유아세포성장인자(FGF21)에 이중으로 작용한다. 베링거인겔하임은 현재 임상 1b상을 진행 중이다.

동아에스티 자회사 미국 뉴로보파마슈티컬스는 ‘DA-1241’를 개발 중이다. DA-1241은 췌장의 베타세포에 존재하는 수용체 GPR119에 작용하는 기전의 혁신신약이다. GPR119는 포도당이나 지질 대사 산물의 양에 따라 인슐

린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을 개선할 수 있다. 회사는 DA-1241의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MASH 치료제는 경쟁약이 드물고, 신약 미종족 수요가 막대해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시장이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MASH 치료제 시장은 2026년까지 253억 달러(약 33조 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MASH 환자 수는 40만59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대사질환과 간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MASH 신약 연구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했다. 첫 신약이 임상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반향을 일으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원인 치료제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한성주 기자 hsj@

손가락만 한 ‘생체조직칩’으로 임상… 동물실험 대체로 주목

인간 장기 기능 칩 내부에 배양
개발 비용 줄고 임상 성공률 높여

전 세계에서 동물실험 대체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생체조직칩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7일 분자 취재를 종합하면 동물보호 등 윤리적인 문제로 전 세계에서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2년 동물실험 없이 신규 의약품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동물실험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했다. 국내에선 오가노이드, 생체조직칩 등으로 동물실험을 대체할 안정성·유효성 평가를 도입 중이다.

사람 장기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칩에 모사한 생체조직칩도 동물실험 대안 중 하나다. 칩에서 세포를 배양해 인간 장기의 조직 구조와 기능을 모사하고, 인체의 생리·병리적 환경을 칩 내부에 구현한다. 세포 배양 생체조직칩으로 동물 대신 약물의

독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선 맵스젠이 앞장서고 있다. 3차원(3D) 혈액뇌관문(BBB) ‘MEPS-BBB’, 2D 혈관상피벽 ‘MEPS-VEB’, 3D 신생혈관 ‘MEPS-ANG’ 등 3종의 생체조직칩을 개발했다. 맵스젠은 이 칩을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공급한다. 지난해 매출 10억 원을 넘겼다. 맵스젠 관계자는 “생체조직칩을 활용한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포가 우리 몸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약물 반응이 잘 나타난다. 개발하는 치료제에 따라 세포를 배양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생체조직칩을 활용하면 신약개발 비용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동물실험의 경우 영양류, 설치류 등 실험동물을 구매하고 사육해야 한다.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한다. 자금이 부족한 바이오기업은 동물을 구매할 돈이 없어 임상을 중단하기도 한다.

반면 생체조직칩을 활용하면 동물실험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맵스젠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하나의 칩은 마우스 8마리로 실험하는 것과 같지만, 가격은 훨씬 낮다”고 말했다.

임상 성공률도 높일 수 있다. 동물실험

에서 독성이 발견되지 않아도 사람과 생리학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체 임상에서 독성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생체조직칩을 활용하면 사람과 비슷한 환경에서 실험하기 때문에 동물 임상보다 정확도가 높다. 생체조직칩에서 독성이 발견되면 인체 임상 돌입 전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 자연스레 인체 임상 성공률이 높아지고 임상에 드는 비용도 절감된다.

맵스젠은 작년 11월 세계 최초로 인체 조직을 자동 배양하는 미세생리시스템(MPS) 자동화 장비 프로세스를 출시했다.

이상민 기자 infactor@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축구도 **하나**

은행도 **하나**

카드도 **하나**



하나 **뿐인**
내 편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거세진 C-커머스 공습에… K-커머스, 각자도생 자구책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C-커머스(차이나커머스)의 공습이 거세지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특히 실적악화를 겪는 일부 이커머스업체는 여러 자구책을 내놓으며 생존방안을 모색 중이다.

7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1일부터 출석체크 적립 서비스를 개편했다. 출석체크시 적립되는 룰렛 당첨 포인트를 마일리지 개념의 스마일포인트에서 e머니 개념의 스마일캐시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당첨 금액을 기존 스마일포인트 10포인트에서 스마일캐시 5원으로 바꿨다. 최대 당첨 금액도 기존 스마일포인트 200포인트에서 스마일캐시 100원으로 변경했다.

상품평 등록에 따른 적립 금액도 바꿨다. 그간 G마켓은 일반 상품평 등록 시 결제금액의 0.3%를 스마일포인트로 지급해왔으나, 2월 말부터 이를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스마일캐시 10원으로 일괄 변

G마켓, 적립서비스 혜택 축소
SSG,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
11번가, 고강도 구조조정 돌입
쿠팡, 대규모 자금 투입 결정 등
이커머스 몸집 키우기 잇따라

경했다. 10만 원짜리 상품 구매 후 일반 상품평을 등록했다면 그동안 3000원과 동일한 수준의 포인트를 지급받았지만, 현재는 10원만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프리미엄 상품평 등록에 따른 적립 금액은 기존과 동일(100원)하다.

앞서 G마켓은 올해 1월 복수 운영하던 포인트제도도 스마일캐시로 통합했다.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포인트 혜택을 일부 축소해 비용 절감 논란을 야기했다. G마켓은 휘발성 포인트인 스마일포인트가 1만 포인트 넘으면 스마일캐시로 전환할

국내 이커머스 업체 수익성 개선 및 사업 전략 ※ 출처: 각 사		
	G마켓	포인트제도 스마일캐시로 통합, 적립 혜택 축소
	SSG닷컴	식품 버티컬 전문관 론칭, 1~2인 가구 소포장 브랜드 '하루' 론칭
	11번가	50여 명 물류센터 관련 인력으로 전환 배치, 두 차례 구조조정
	쿠팡	2026년까지 3조원 물류에 투자, 로켓배송 전국화
	큐텐	자회사 인터파크커머스 활용 AK몰 인수

수 있어, 이번 개편이 소비자 편의 증대가 목적인다는 입장이다. G마켓 관계자는 “포인트와 캐시는 사용성 등에서 볼 때 동일한 비교는 무리”라면서 “이번 개편은 고객 혜택을 위한 제도로, 비용절감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의 또 다른 이커머스 계열사 SSG닷컴은 개인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식품 버티컬 전문관을 론칭한 것이 대표적인데, 단순 전문관을 프리미엄 그로서리, 콘텐츠·상품 스토

리텔링을 앞세웠다. 특히 고객이 새로운 상품을 발견하는 재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테마별 추천과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큐레이션에 공을 들였다. 또 소포장 신선식품 브랜드 ‘하루’를 론칭해 1~2인 가구 수요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SSG닷컴이 고객친화적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개인맞춤 서비스 강화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올해 사업 전략과 맥이 같다.

11번가는 현재 고강도 구조조정

에 나섰다. 11번가는 최근 내부 인력 50여명을 물류센터 관련 업무로 전환 배치했다. 그간 11번가는 이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처리해왔다. 또 11번가는 작년 12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받았다. 두 번째 희망퇴직 접수 때는 대상자를 보다 확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몸집을 키우는 이커머스 업체도 잇따르고 있다. 쿠팡은 알리의 한국 시장 투자에 맞서기 위해 2026년까지 3조 원의 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쿠팡의 투자금은 풀필먼트센터(FC) 확장 등 배송 네트워크 고도화에 쓰인다. 이를 통해 쿠팡은 전국을 로켓배송 권역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알리는 한국에 물류센터를 짓는 등 향후 3년간 약 1조 5000억 원을 투자 예고한 바 있다. 큐텐도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애경그룹 계열 유통점 AK플라자의 온라인쇼핑몰 AK몰을 인수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가게 50군데 발품팔아 ‘물건’ 만들어냈죠”

인터뷰

김혜림 세븐일레븐 MD

‘세븐셀렉트 밀크바닐라콘’
원유함량 시중제품의 10배
핀란드서 얻은 아이디어 적용
8개월동안 개발… ‘매장 1위’



7일 서울 종로구 수표동 코리아세븐 본사에서 만난 김혜림 세븐일레븐 아이스크림 담당 MD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제공 코리아세븐

“편의점에서도 전문점 수준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선보이고 싶어 유명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죠.”

김혜림 세븐일레븐 아이스크림 담당 MD는 7일 서울 종로구 수표동 코리아세븐 본사에서 진행한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유명 프랜차이즈는 물론 젤라또 가게 등 아이스크림 가게 약 50군데를 찾아가 맛보고 분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작년 3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세븐셀렉트 밀크바닐라콘’은 8개월 가량 개발 기간을 거쳐 그해 10월 출시됐다. 김 MD의 손에서 탄생한 밀크바닐라콘은 출시 직후부터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주력 상품이 됐다.

그는 많이 먹어보고 느껴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개발 전 가능한 많은 아이

스크림을 접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평소 과일이나 디저트 등 주변에 있는 식재료는 무엇이든 일단 열려 먹으며, 아이스크림 상품화를 고민했다. 김 MD는 “새로운 디저트나 식재료를 접하면, 일단 냉동실에 한 번씩 얼려본다”며 “다양한 실험을 통해 개발할 만한 아이스크림을 끊임없이 고민한다”고 했다.

밀크바닐라콘의 아이디어는 그가 여행을 갔던 핀란드가 원천이 됐다. ‘아이스크림 소비율 세계 2위’일 정도로 추운 나라 핀란드에서 아이스크림은 인기 간식 메뉴다. 추울수록 열량이 많이 필요해 유지방 함량이 높은 아이스크림이 특히 잘 팔렸다. 그는 핀란드의 마트, 슈퍼, 편의점 곳곳을 방문해

한국에서 접하지 못한 아이스크림을 맛봤다. 핀란드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적용해 밀크바닐라콘의 원유 함량을 통상 5% 정도인 시중 제품과 달리 50%로 대폭 늘렸다. 그러자 버터같이 진한 풍미가 느껴지는 고급 아이스크림이 탄생했다.

그런데 ‘가격 이슈’가 출시에 발목을 잡았다. 원유 함량을 높일수록 생산비가 늘고, 가격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외면받을 것이라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김 MD는 제대로된 제품만 만든다면 소비자가 과감하게 지갑을 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목표는 시장에서 제대로 통했다. 작년 10월 출시한 이후 큰 인기 끌며 단숨에 세븐일레븐 아이스크림 카테고리 1위에 등극, 아이스크림 전체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김 MD는 “3000원이란 다소 비싼 가격으로 인해 내부에선 반신반의했다”면서 “시장조사 결과, 한끼 식사비는 아껴도 맛있는 디저트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MZ세대가 많다고 확신, 가격보다 제품의 질 향상에 집중했다”고 했다.

그는 최근 경영주 대상 세븐일레븐 상품 전시회에서 느꼈던 뿌듯함도 전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 MD는 “경영주분들께 제품 설명을 하기도 전에 호평해주셔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문현호 기자 m2h@



신세계백화점 ‘마일드무무 반려인형 데려가세요’ 신세계백화점이 17일까지 봉제인형 브랜드 ‘마일드무무’의 팝업스토어를 진행하고 7일 밝혔다. 강남점 센트럴시티 1층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풍오리 인형부터 마우스패드, 미니 파우치 9종, 긴팔 파자마 상하의 세트 등 패션·문구 소품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 대형 인형이나 키링 등 경품도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쿠팡 PB상품 중소 제조사 550곳 돌파

쿠팡 자회사 ‘씨피엘비’와 협력
2019년의 3배… ‘동반성장’ 앞장
고용인원도 10개월새 3000명 ↑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중소 제조사의 매출과 고용 증대 효과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자체 브랜드 자회사 ‘씨피엘비’(CPLB)와 협력하는 중소 제조사가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550곳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2019년 말 160여곳과 비교해서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에도 20% 증가했다.

협력 중소 제조사들의 고용 인원은 올 1월 말 기준 2만 3000명을 넘겼다. 지난해 3월 2만 명에서 10개월 만에 약 3000명 늘어난 수치다.

반면 지난해 3월 대비 올 1월 국내 취업 자수는 오히려 1.7% 감소했다. 저고용·저성장 악순환 속에 쿠팡과 손을 잡은 중소 제조사들의 고용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550곳에 달하는 중소 제조사들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곰곰·탐사·코멧·비타할로 등 브랜드를

운영하는 CPLB의 파트너사 10곳 중 9곳은 중소 제조사들이다. 이들은 PB 제품수와 판매 수량의 약 80%를 책임진다. 소비자가 쿠팡의 PB 상품을 구매하면 할수록 중소 제조사의 고용과 매출이 덩달아 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중소 제조사들은 쿠팡 PB 상품 매출의 약 80%를 차지한다.

쿠팡에서 마케팅과 로켓배송·로켓프레시 등 물류와 유통, 고객 응대를 책임지고, 중소 제조사는 오로지 제품 생산과 품질 업그레이드에 집중하도록 지원한 결과다.

이렇게 탄생한 PB제품은 고물가 시대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갖춘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누리며 중소제조사들에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 제조사의 약 80% 이상은 서울 외 제주·충청·경상·전라도 등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지역 곳곳에 고용을 창출하고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쿠팡의 대만 진출로 PB 중소 제조사들도 해외 수출을 늘리고 있다. 건강식품 제조업체 ‘케이에프한국자연농산’ 매출은 2019년 7억 원에서 지난해 21억 원으로 3배 늘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SSG닷컴, 대안육 시장 키운다… ‘린다 매카트니’ 4종 판매

SSG닷컴이 대안육의 국내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1991년 론칭한 전통의 브랜드를 선보인다.

SSG닷컴은 영국 대안육 브랜드 ‘린다 매카트니(LINDA McCARTNEY’S)’ 상품 4종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린다 매카트니는 비틀즈 멤버 폴 매카트니의 전 아내로, 채식주의의 운동가이기도 했던 자신의 이름을 따 1991년 론칭한 식물성 대안육 브랜드다. 환원 대두 단백질과 고

기 대용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으며 영국 베지테리언 소사이어티로부터 100% 비건 인증을 받았다.

SSG닷컴 미식관에서 판매하는 린다 매카트니 상품 4종은 ‘베지테리언 피시 핑거스(320g, 1만 2800원)’, ‘베지테리언 쿼터파운드버거(227g, 1만 800원)’, ‘베지테리언 토마토 앤 바질 미트볼(292g, 1만 800원)’, ‘베지테리언 페이스

트리 소시지롤(342g, 1만 800원)’이다. 다양한 조합의 묶음 상품(2종·4종 세트)도 판매하며 1+1 행사도 진행한다.

국내 비건 인구 증가세에 발맞춰 SSG닷컴은 대안식품을 확대하고 있다. 신세계푸드 ‘베러미트’, 풀무원 ‘풀무원지구식단’, CJ제일제당 ‘플랜데이블’, 동원F&B ‘마이플랜트’ 등 다양한 비건 식품 브랜드를 입점시켰으며 구매 고객도 늘고 있는 추세다.

문현호 기자 m2h@

“포용·소통능력 ‘여성리더 강점’ 살린다면 기회는 있다”

유리천장 뚫은 여성 금융리더 ③ **박산업 KB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자기 분야에서 성과가 있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KB국민은행에서 내부 승진으로 부행장 자리에 오른 첫 여성 임원, 박산업(사진)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이 밝힌 성공의 비결이다.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로 통하는 박 부행장은 국민은행 여성 임원 3명 중 유일한 ‘정통 KB우먼’이다. 스마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등 마케팅 한 분야를 판 그는 1987년 국민은행에 입행한 지 37년 만에 ‘은행의 별

이 됐다. 특히 타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여성 임원 배출이 늦었던 국민은행에서의 첫 내부 출신 승진자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올해부터 디지털사업그룹 대표를 맡아 KB스타뱅킹과 KB부동산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박 부행장은 최근 본지와 만나 은행에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과를 낸다면 성별에 상관없이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유리 천장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여성리더’만의 강점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바로 포용력과 소통능력이다. 그는 “요즘 20~30대 직원은 ‘미래에 내가 팀장, 부장이 될 수 있을까’ 보다는 ‘당장 지금의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성향이 있다”며 “이런 직원들을 따뜻하게 다독이고,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역량 수준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돕는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성과 비결은 ‘적극성’…직원 소통도, 업무도 “내가 먼저”= 박 부행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업무방식을 선호한다. 개인마케팅본부장 시절, 직원들 사이에 의자를 하나 놓고 앉아 사안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하고 묻곤 했다. 그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물론 아이디어 중에는 당장 실행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직원 입장에서 공부도 많이 되고, 또 ‘나의 고민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도 받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의 업무 방식으로 팀원들과 이뤄낸 성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022년 말 진행된 ‘한정판 다이어리 키트 이벤트’다. KB스타뱅킹 이용 고객이 입출금 알림 등 미션을 수행하면 제공하는 리워드로, 6개월에 걸쳐 여성 팀원 4명이 기획한 아이디어였다. 당시 개인마케팅본부장이었던 박 부행장과 임원들의 첫 판단은 “안 될 것 같다”였다. 그는 예산이 많이 들어 실패 시 리스크가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럼에도 당시 박 본부장의 최종 결정은 “해보자”였다. 실패 또한 팀원들의 경험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부행장을 찾아 “실패하면 다른 것으로 최선을 다해 커버하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읊소했다.

결과는 대성공. 무려 8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이 몰렸다. 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최대 규모였다. 박 부행장은 “의사결정자들은 늘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결정하고 통보하곤 하는데, 직원들에게 맡기면 더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팀원들에게 졌을 때의 행복감이 되게 오래 남더라”라며 미소를 보였다. 이후 해당 팀은 지난해 연말에도 업그레이드된 다이어리

키트 증정 이벤트를 실시했다. 올해 연말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부행장의 또 다른 성과는 온라인 마케팅의 개인화다. 고객관계관리(CRM)이란 고객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솔루션으로, 대면 영업에서 중요한 고객 관리 방법으로 꼽힌다. 그러나 그가 스타뱅킹 플랫폼 담당 팀장이던 2012년,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고객과의 1대1 접점을 만드는 비대면 CRM은 ‘없는 영역’이었다.

업무 많이 물어 온다고 ‘제비’ 별명 강점 살려 스스로 기회 잘 활용해야 조직내 성별 다양성 확보도 매우 중요

미래 금융 변화 준비하는 디지털사업대면 뛰어넘은 비대면 경쟁력 급선무 마케팅·플랫폼 등 고객신뢰확보 절실

박산업 부행장 프로필

인적사항

▶ 1968년생 ▶ 남해여고 ▶ 한양대 경영학 ▶ 건국대 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주요경력

▶ 1987년 입행 ▶ 국민은행 스마트마케팅부장 ▶ 디지털마케팅부장 ▶ 개인마케팅부장 ▶ 개인마케팅단장 ▶ 개인마케팅본부장 ▶ 개인마케팅본부장 전무 ▶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현)

팀원들과 함께 6개월간 전산 담당 부서 설득 과정 등을 거쳐 e-CRM을 구축했다. ‘전 계좌 조회’ 화면에 만기가 도래한 상품, 가입 추천 상품, 거래 정지나 휴면 전환을 앞둔 계좌 등 고객에게 개인화된 내용을 담았다.

팀원들과 신규 서비스를 만든 이 같은 경험은, 그가 ‘제비’라는 별명을 얻게 된 배경이다. 2012년 팀장 시절, 그가 ‘박씨’ 대신 ‘알’을 많이 묻고 온다면서 한 팀원이 ‘제비’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e-CRM은 팀의 기존 역할을 뛰어넘는 업무였기에 고단했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기

꺼이 맡았다.

박 부행장은 “일이 많이 주어졌을 때 바로 ‘못한다’며 체내기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위에서 ‘누가 이 일을 할래’하고 물어보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도와주십시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 강점 살리기’ 중요…조직 내 문화·제도로 성별 다양성 확보해야= 박 부행장은 여성 직원들에게 자신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릴 것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간혹 ‘여성인데 남성처럼 일한다’는 말을 칭찬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자다움’을 경쟁력으로 보는 것인데, 이런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특장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잘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다. 박 부행장이 마케팅 본부 팀장이던 2012년에는 여성 팀장이 별로 없었던 탓에 경영진 간담회나 브리핑에서 입을 열면 늘 주목받았다. 그는 이를 ‘기회’라고 보고 회의 때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각을 자신감 있게 표현했다. 박 부행장은 “누군가가 알아서 나를 알아주겠지라는 마음보다 스스로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조직 내 문화, 제도 등도 조직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육아 휴직 이후 복직할 때 충분히 직무를 따라갈 수 있게끔 복직 이전의 훈련,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 없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 여성 직원들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유라고 진단했다.

박 부행장은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지금도 여성의 경력단절로 차기 직급으로 가야 할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 여성의 승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자녀출산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보완해주는 프로그램, 복직 전 교육 프로그램 등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비대면 영업력을 대면 영업력 이상으로 성장시키는 게 목표”= 그가 이끌고 있는 ‘디지털사업그룹’은 곧닥처를 금융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는



3~5년 안에 대면 창구를 찾던 개인 고객 대부분이 모바일, 인터넷 뱅킹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부행장은 “지금도 금융상품 판매의 70~80%가량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며 “디지털 인프라를 더 고도화하고, 이에 맞는 상품 라인업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사업그룹 대표로서의 목표는 국민은행이 기존에 갖고 있던 대면 영업에서의 경쟁력을 비대면에서도 갖추는 것이다. 그는 “국민은행의 조직력과 축적된 대면 영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이 대면으로 업무를 보는 것 이상으로 만족할 수

있게끔 디지털 인프라 프로세스를 갖추고, 상품을 제시할 것”이라며 “비대면 영업력을 대면 영업력 이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최대 미션”이라고 했다.

국민은행 부행장으로서의 가장 큰 목표는 고객 신뢰 확보다. 박 부행장은 “국민은행하면 신뢰, 안정성이 떠오르는데, 결코 낡은 이미지라고 보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근간이기 때문”이라며 “마케팅, 플랫폼 등 모든 부문에서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유하영 기자 haha@

하나銀 이어 신한銀도 홍콩ELS 투자자 자율배상금 지급

홍콩 항생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 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의 배상금 지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부 은행들을 중심으로 투자자와 협의를 마치고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여전히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달 중순 이후에나 투자자와의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4일 약 10명의 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마쳤다.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단 몇새 만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달 말 일제히 이사회에서 자율배상 방침을 의결한 뒤 실제로 배상이 성사된 것은 지난달 29일

하나은행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반면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자율배상에 나선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의 올해 만기 도래 H지수 ELS 계좌 수가 약 20만 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판매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의 경우 배상에 앞서 전수 조사한 계좌(1~7월 만기 도래)만 8만여개에 달

한다. 배상 협의를 준비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농협은행은 현재 H지수 ELS 가입 계좌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개별 고객에 대한 배상 협의 통지 등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제일은행 등은 아직 배상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역시 이달 중순 이후에나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배상 협의가 시작돼도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계층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투자자 단체 등은 여전히 100%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자율배정에 실패하게 되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또는 소송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일부 은행 이달 중순後 본격 협상
자율조정 실패면 분쟁조정·소송

“금융소비자 사로 잡겠다”는 與野… ‘총선 이후’ 은행권 부담

금융권 압박강도 거세질 듯

정치권 ‘선심성·재탕공약’ 즐비
구체적 예산마련 방안도 없어
ELS·민생금융 부담도 큰 상태

4·10 총선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금융공약에 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금융공약이 검증대에 오르게 되면 금융사들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수 있어서다. 특히 올해 은행권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각종 민생금융 지원방안까지 조(兆)단위 대규모 금액을 토해낼 예정이어서 수익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총선에서 ‘여야 누가 이기든’ 금융사들이 짊어질 부담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상향 조정 △인터넷전문은행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개선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단계적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 통한 제도개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증액 통해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할 추가 대출 지원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해 28조 원 공급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 완화, 신속 금융지원하는 체계 구축

국민의힘	여야 총선 주요 금융공약 ※ 출처: 당별 정책공약집	더불어민주당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채형저축 제도입을 통한 서민·중산층의 목돈 마련 지원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개선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단계적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 통한 제도개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증액 통해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할 추가 대출 지원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해 28조 원 공급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 완화, 신속 금융지원하는 체계 구축	가산금리 산정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전가되는 항목 제외(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 삶에 밀접한 비금융채무조정 강화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를 통한 제도개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증액 통해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할 추가 대출 지원 등의 공약을 내놔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담 전가되는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 삶에 밀접한 비금융

채무조정 강화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문제는 이들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예산 마련 방안 등은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인해 은행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여야의 총선 공약 다수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구호성·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일부 공약의 경우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이 많다고 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체계화된 공약이 없다 보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인터넷은행과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등은 은행권에 직접적인 수익 감소나 비

용 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은행권은 이미 올해 H지수 기초 ELS 사태로 인해 자율배상을 추진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손실률 50%, 배상률 40%를 적용하면 은행권에서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최소 2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또 은행권은 사상 최대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조1000억 원+α 규모의 지원금을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홍콩 ELS 자율배상과 상생금융에 소요되는 비용만 작년 은행권 당기순이익(21조3000억 원)의 20% 수준에 달한다. 여기에 여야의 총선 공약 실행을 위해 추가 비용 투입 압박이 이뤄지면 올해 은행의 실적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부담도 커지게 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야의 금융공약을 보면 이미 발표했다가 현실적인 문제로 실행되지 못했는데 다시 내놓은 ‘재탕 공약’도 보인다”며 “정작 이런 공약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 보니 공약 중심에 있는 은행들의 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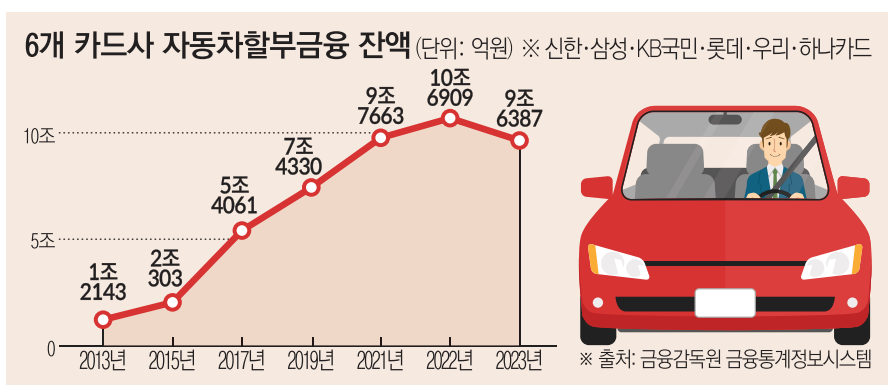
10년만에 ‘車금융’ 뒷걸음치는데… 카드사 제재?

작년 ‘차할부금융’ 9.8%↓ 9.6조
고금리에 자금조달비용 상승 영향
편법대출 등 부실위험에 당국 규제

카드사들의 효자노릇을 해왔던 자동차할부금융의 성장세가 10년 만에 꺾였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올해 자동차 내수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데다 금융당국이 편법대출 등 부실 우려가 제기된 자동차금융시장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수익원 발굴이 시급한 카드업계의 고심도 한층 깊어진 모습이다.

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동차할부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6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의 관련 자산은 지난해 9조6387억 원으로 전년(10조6909억 원) 대비 9.8% 쪼그라들었다. 2013년 이후 지속 성장해왔던 자동차할부금융 자산이 10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자동차할부금융업은 캐피탈사 자산의 15~3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 먹거리다. 그러나 최근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여파로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에서 이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카드사들이 자동차할부금융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시장 판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동차할부금융 금리는 카드사가 더 낮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올 뉴 그랜저(신차)를 현금구매비율 10%, 60개월로 할부했을 경우 6개 카드사 평균 금리는 하단이 연 5.1~6.9% 수준이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주요 캐피탈사(현대·KB·롯데·하나·농협·BNK)의 평균금리는 연 5.6~7.0%로 카드사보다 높다. 카드사의 자동차할부금융 자산이 빠르게 늘어난 이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도 카드업계가 빠르게 자동차할부금융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카드사를 통해 60개월 장기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은 대출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사 회원의 한시적인 이용한도 증액과 특별한도 부여를 통해 고객을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카드사 자동차할부금융 시장은 위축되기 시작했다. 고금

리 여파로 과거 2%대 초반이었던 여전채금리가 지난해 말 5%에 육박하면서 조달비용도 급격히 오른 영향이다. 경기 침체 우려로 자동차 수요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 1·4분기 국내 신차 판매량(승용·상용차 합산)은 40만1322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5만2539대)와 비교해 11.3% 감소한 것이다.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줄어 들었다. 연체를 상승으로 건전성 관리 강화를 해야 된다는 점도 할부금융 강화에 소극적이 될 수는 배경이 됐다. 자동차할부금융은 장기간에 걸쳐 상환이 이뤄지는 상품인 만큼 고금리 상황에서 연체 발생 우려가 큰 상품이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카드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편법대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규제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성원 기자 jsw@

한소희 가고 고윤정… 농협은행 새모델 발탁

NH농협은행이 배우 고윤정(사진)을 새 광고모델로 기용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번 주부터 고윤정을 모델로 한 인쇄 광고를 선보인다. 이어 TV,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광고를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고윤정은 농협카드 모델로도 활동하게 된다. 농협은행은 지난 3년 동안 배우 강하늘과 한소희를 모델로 기용해왔으나, 최근



계약 기간이 만료돼 새 얼굴을 물색해왔다. 고윤정은 영화 ‘헌트’, 드라마 ‘무빙’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배우로,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촬영을 마치고 방송을 앞뒀다.

김법근 기자 nova@

대리운전하다 ‘깡’… 최대 10억 보상

쥐꼬리 보상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한도 이달부터 확대

대물배상 한도 2억→10억
차주 렌트비용 보상 특약 신설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 사고 시에도 충분히 사고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와 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이달 출시된다. 또 차주(대리운전 이용자)의 렌트비용을 보장하는 특약도 신설된다.

7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작년 연말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4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가 확대된 상품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그간 대리운전 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보상 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보험 상품 개선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한다.

차대차 사고 시에만 보장하는 특약(‘차대차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 시 보장하는 특약(‘전체 사고 특약’)으로 구분 출시된다. 대

리운전 기사는 본인의 운전습관 및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두 가지 특약 중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장하지 않았다. 차주가 렌트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운전 기사가 개인 비용으로 이를 보장해야 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상한도를 대물배상은 3억·5억·7억·10억 원, 자기차량손해는 2억·3억 원으로 세분화해 확대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보장받고자 하는 사고위험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한도를 선택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 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 원 한도로만 가입 가능해 고가 차량과의 사고 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리운전 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4개 보험사(DB·현대·삼성·롯데)는 이달부터 보상 범위와 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나머지 2개사(메리츠·KB)도 내달 중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상한도 및 범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출시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대리운전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 제도 도입도 6월 내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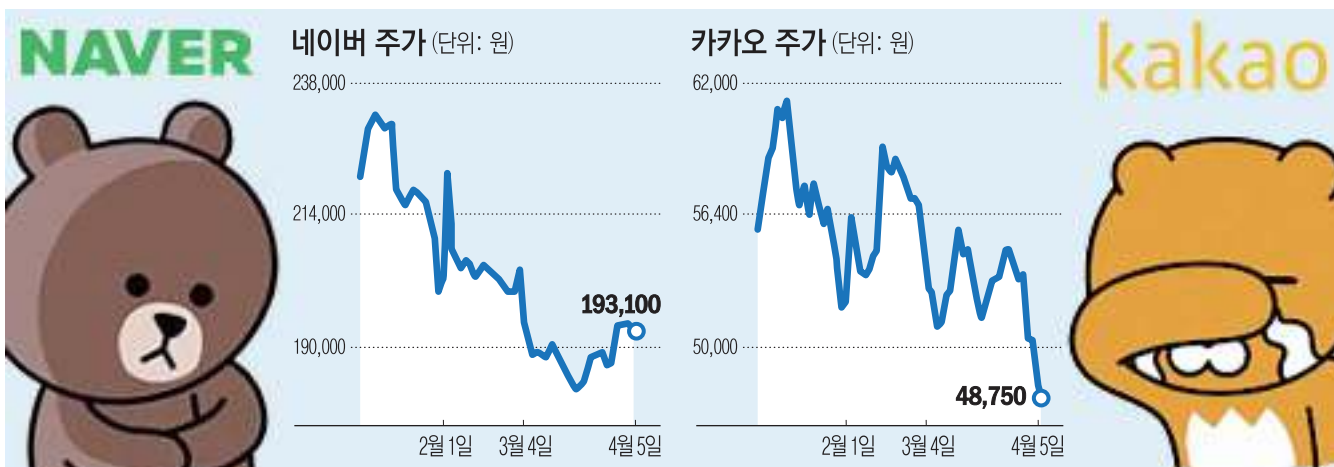
美 기술주는 치솟는데… 몸값 바닥 기는 ‘네카오’

금리인하·기술주 호황 기대했지만
올해 들어 주가 10% 이상씩 하락
‘최고가’ 삼성·글로벌 기술주 대조
AI 사업도 호재 없이 제자리걸음

#사회초년생 한 모 씨(34)는 연초 네이버 주식을 약 2000만 원어치 매수했다. 평균 매수가는 22만 원대. 인공지능(AI)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 소식에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사들인 것이다. 그러나 네이버 주가는 한씨의 예상과 달리 1분기 내내 꾸준히 하락했다. 한 씨는 “연내 금리인하, 기술주 랠리까지 겹치며 무조건 오를 줄 알았다”며 “묻어둬야 할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네카오(네이버·카카오)’ 주주들의 한숨이 깊다. AI 등 혁신 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미국 기술주의 몸값은 치솟지만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인 네카오 주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주가가 추락하며 한때 3·4위를 다투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현재 10위, 17위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들어 각각 13.79%, 10.22%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2.22% 상승할 때 두 종목은 크게 하락한 셈이다. 또 다른 ‘국민주’이자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연일 최고가를 찍으며 상승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올해 삼성전자는 7.64%, SK하이닉스는 29.19% 상승했다.



글로벌 기술주와 비교하면 더 초라한 성적표다. 미국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메타 플랫폼스 주가는 연초 이후 48.98% 수직 상승했다. 마이크로소프트(13.16%)와 알파벳(9.17%) 주가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가 하락의 중심에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자리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금리 흐름에 예민한 ‘성장주’여서다. 지난해부터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최근에는 그 분위기가 식어가는 추세다. 실제 4일(현지시간)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매파(통화 긴축)적 발언을 했다.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의 약진도 부담이다. ‘광고 기업’으로서 네이버·카카오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 같은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뭉치돈을 아끼지 않는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이 반갑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또한 네이버·카카오 실적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업인 만큼, 중국계 쇼핑앱의 침투로 인해 경쟁력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려도 나온다.

네카오는 남은 희망을 AI 사업에 걸고 있지만, 양사 모두 특별한 호재는 없다. 네이버는 지난해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했지만 아직 베타 테스트 중이다. 카카오의 AI 모델 ‘코GPT 2.0’ 출시 시점은 연기되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 한 해도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

으로 사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주가만 보면 주주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최근 1개월간 5곳의 증권사(다올·미래·한화·SK·대신증권)가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카카오 목표주가도 잇달아 하향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가 콘텐츠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는 시기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보다 9.3% 낮춘 6만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에 대해 “올해 전반적으로 중국 직구 플랫폼을 대비한 커머스 관련 마케팅비 증가, 데이터센터와 AI 사업 관련 인프라 비용의 증가를 예상한다”며 “가장 큰 우려 사항은 광고 실적의 더딘 회복과 중국 직구 플랫폼 영향에 따른 커머스 사업의 성장 둔화”라고 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에 대해 “광고는 경기 불황에도 메시징 광고 성장이 견조하지만 콘텐츠 사업부의 부진이 실적 발목을 잡는 모양새”라며 “특히 네이버 웹툰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주요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하자 카카오 웹툰에 대한 마케팅 투자를 다시 늘리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광고와 커머스를 제외한 사업부들의 성장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인 만큼 이를 반전시킬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운용사 “1억 투자때 月 100만원” 배당형 ETF로 ‘고객잡기’ 후끈

매매 차익보다 배당금 관심 쏠려
커버드콜ETF 분배율 높이기 집중

#KB자산운용의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는 2일 첫 분배금을 지급했다. 주당 분배금은 105원이다. 분배율은 약 1.01%로, 해당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개월 만에 약 100만 원의 분배금을 받게 된 셈이다. 3월 상장한 이 상품은 KB자산운용이 6개월간 지수 독점권을 갖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4월 중 △ACE 미국500 15% 프리미엄분배 △ACE 미국반도체 15% 프리미엄분배 △ACE 미국빅테크7+ 15% 프리미엄분배 등 3종의 신규 ETF를 상장할 예정이다.

최근 ETF 매매차익보다 배당금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들의 시선이 ‘커버드콜ETF’로 향한다. 운용사들도 분배율을 높여 고객 잡기에 한창이다.

7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한투운용은 이달 첫 커버드콜 ETF를 내놓는다. 특히, 목표로 설정한 순자산총액(AUM)의 15%를 매년 배당하는데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상품 구성으로만 보면 5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매월 62만5000원(세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자산운용업계의 배당금 늘리기 경쟁에도 불씨가 붙은 모습이다. 현재 커버드콜을 포함해 전체 배당형 ETF 중 가장 높은 분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테슬라인컴프리미엄채권혼합액티브’다. 올해 1월 상장된 해당 ETF도 커버드콜을 적용 중이며, 지난달 지급된 첫 월 분배금은 주당 132원이었다. 목표 연 분배율은 15%에 달한다.

KB자산운용은 만기가 일주일 내로 짧은 콜옵션을 매도하는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로 고객 잡기에 나섰다. 연 분배율은 12%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출시 후 석 달간 배당금이 나온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도 연 분배율이 12%를 웃돌 전망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월이나 연 단위로 배당금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에 투자자 관심이 몰리며 배당형 상품 분배율이 상향되는 분위기”라며 “조금이라도 분배율을 높이려는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비맥스, 마침내
제24회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대통령상 수상

이 영광을
약사님과
고객님께

대통령상
brand
KOREA
AWARDS
약사님과 고객님께

비맥스

[광고심의필 2023-1659-002401] *2022년 24회/주최:산업통상자원부/주관:산업정책연구원 "허가사(제조자 또는 제조 의뢰자): (유)한풍제약/판매사:(주)녹십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9억 이하’ 신생아 대출, 서울 아파트 시장 ‘찾잔 속 태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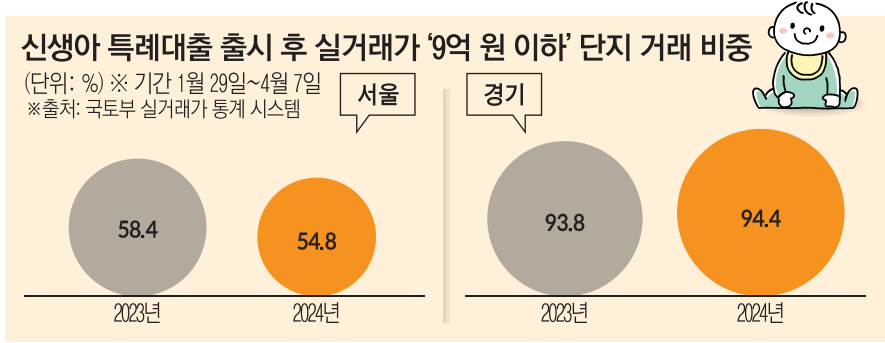
제도 시행 후 9억이하 거래 비중 54.8%로 작년보다 오히려 낮아 전체 거래량도 이전과 대동소이
소득기준 완화에도 분위기 냉랭 전문가 “평균집값 이미 9억이상 12억 정도로 주택 가액 넓혀야”

신생아 특례대출이 정착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찾잔 속 태풍’에 그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지난 1월 29일 신생아 대출 시작 이후 지금까지 대출 허용 기준인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되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억 원 이하에 전용면적 85㎡형 이하 아파트라는 한정된 기준 탓에 서울지역에선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는 신생아 대출이 집값에 영향을 주려면 집값 기준을 높이는 등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 분석 결과, 신생아 대출이 시작된 1월 29일 이후 이날까지 서울 내 아파트 거래 중 ‘9억 원 이하’ 단지 비중은 54.8%(전체 5275건 중 2892건)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 내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 58.4%(6205건 중 3625건)와 비교하면 약 3.6%포인트(p)가량 적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신생아 대출 출시 전인 1월과 비교해 대폭 늘어나는 현상도 없었다. 또 서울 아파트 매물은 되려 늘어나는 등 아파트 시장 움직임은 신생아 대출 출시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월 2568건, 2월 2501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3월 거래량은 2643건으로 전월 150건가량 늘었다. 또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으로 두 달 전 대비 7.7% 늘어난 8만



33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매물 상승률 1위 수준이다.

실제로 서울 안에선 시세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쏠린 외곽지역의 아파트값은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값의 상승 전환에도 약세를 보인다. 지난 1일 기준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강북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도봉구는 -0.05%, 노원구는 -0.02% 등으로 모두 하락했다. 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하락 지역은 이들 지역과 함께 중랑구(-0.01%)와 구로구(-0.01%), 관악구(-

0.02%) 등 아파트값이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었다.

반면, 경기도 내 아파트 거래 중 9억 원 이하 단지 비중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신생아 대출 출시 후 이날까지 9억 원 이하 단지의 거래 비중은 94.4%(1만6317건 중 1만5401건)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 93.8%(2만499건 중 1만9237건)보다 앞섰다. 정부는 신생아 대출 적용 대상을 늘리기 위해 지난 4일 신생아 대출 기준 중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7000만 원 상향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 주택 실수요자의 반응은 차갑다. 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 평균 집값이 9억 원을 넘긴 상황이므로 신생아 대출만이라도 집값 기준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가 신생아 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은 긍정적이고 저금리(최저 1%대)를 적용한 것도 큰 이점”이라며 “다만, 최근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실수요 확대를 위해선 서울 기준으로 12억 원까지 주택 가액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 “더 크게 보면 최근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스트레스 DSR’ 제도 역시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적용할 필요성은 낮다”며 “앞서 시행한 특례보증자 리론과 같이 규제를 대폭 풀어 준 정책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하남 감일지구·과천 지식정보타운 무순위 접수 최고 6억 차익 ‘로또 줍줍’ 또 나온다

각 2·3가구…수요자 운집 예고

경기도 하남시 일대와 과천 지식정보타운(지정타)에서 각각 최고 4억 원, 6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풀린다. 주택시장이 낙폭을 줄이고 반등을 꾀하는 분위기인 만큼, 앞선 줍줍(무순위 청약) 단지들을 뛰어넘는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8일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감일 푸르지오마크베르’ 미계약 등으로 나온 잔여물량 2가구(전용면적 84㎡)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대 29층, 전용 84·114㎡ 총 496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마쳤다. 앞서 2020년 11월 진행된 1순위 청약 284가구 모집에는 11만4955명이 몰려 40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청약은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인 5억5490만 원, 5억7030만 원으로 공급돼 최소 3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단지과 인접한 ‘감일 파크센트레일’ (2021년 10월 입주) 전용 84㎡는 2월과 3월 각각 10억7500만 원, 10억1500만 원에 매매됐다.

과천 지정타에서도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2가구)와 ‘과천 르센토 데시앙’ (1가구)에서 전용 84㎡ 총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가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은 이달 18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23일부터 24일까지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는 2020년 분양 당시 가격인 7억 원 중후반 대로 공급된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용 84㎡의 최근 매매가는 2023년 10월 거래된 14억

7000만 원이다. 르센토 데시앙은 지난해 8월 13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시세와 비교하면 최고 6억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선 폭발적으로 많은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우수한 입지에 풀린 ‘줍줍’ 청약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무순위 청약에 받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4894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4894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 분양업계 전문가는 “최초 분양가로 풀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은 수억 원의 마진을 낼 수 있는 데다 까다롭지 않은 접수 조건까지 더해져 많은 이들이 몰릴 것”이라며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 폭을 좁히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분위기인 점을 보면 앞선 줍줍보다 높은 경쟁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20개월만에 최고

3월 86.4%, 진행건수 19% 늘어 낙찰률도 상승…경매 시장 온기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이 오르며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법원경매 진행 건수는 1004건으로 전달(843건)에 비해 19% 늘어났으며,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86.4%로 지난 2022년 7월(93.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작년 11월 81.6%에서 12월 82.4%, 올해 1월 84.6%, 2월 85.8% 등으로 4개월 연속 올랐다. 평균 응찰자 수 역시 4개월 연속 늘

면서 지난달 11.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11.7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경매가 진행된 물건 총 1004건 가운데 400건이 주인을 찾으면서 낙찰률은 전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39.8%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85.7%→87.3%)와 인천(79.5%→82.8%) 모두 낙찰가율이 올랐다. 평균 응찰자 수 역시 경기 13.23명, 인천 10.95명으로 전달(경기 12.53명, 인천 10.36명)에 비해 늘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 연구원은 “전세보증 사고로 경매에 넘어간 물건 중 주택 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권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에 수요가 몰리면서 발라 낙찰가율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금주의 분양캘린더

4월 둘째 주에는 전국 196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둘째 주에는 대전 중구 문화동 ‘e편한세상서대전역센트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범어아이파크’, 울산 중구 다운동 ‘울산다운2A6(행복주택)’ 등 3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를 발표하는 곳은 2곳이다. 경남

양산시 ‘사송롯데캐슬B8(민간임대)’는 9일 당첨자를 가린다. 세종시 조치원을 ‘세종조치원역1(행복주택)’ 당첨자 발표는 11일이다.

4월 둘째 주 계약 진행 단지는 없다. 견본주택을 여는 곳은 총 3곳이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부산장안지구디에트르디오션’은 10일 오픈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 신촌동 ‘엘리프성남신촌(공공분양)’,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일광노르웨이 숲오션포레’는 12일 견본주택을 연다.

국립세종수목원 이어 새만금수목원 조성 수주

DL이앤씨 “업계 최고 경쟁력 입증”

DL이앤씨가 국내 최초 도심형 수목원인 국립세종수목원에 이어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수주해 시공 중이라고 7일 밝혔다. DL이앤씨는 국내 대형 수목원 사업을 줄줄이 수주하며 조정 분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전북 김제 새만금지구 해안 간척지에 150만㎡ 규모로 들어선다. 간척지에 조성하는 국내 최초의 수목원으로, 매립된 황무지 땅에 1014종, 총 62만 본의 식물을 심는다.

특히 이 수목원은 전 세계 해안 및 도서 식물자원을 주제로 한 해안형 수목원을 테마로 한다. 주요 시설로는 조개 형상을

모티브로 한 온실인 ‘해안식물돔’부터 7가지 테마를 부여해 입체적 공간으로 구성한 ‘새만금 이야기숲’, 간척지 식생의 특성을 관찰할 수 있도록 연출한 ‘도서화원’, 해안사구 식물 보전 공간으로 조성되는 ‘해안사구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이 국내 최초의 해안 매립지에 들어서는 만큼, DL이앤씨는 염분차단 공법과 토양개량 공법 등 염해 및 해풍에 대한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하게 시공 중이다. 준공 예정일은 오는 2027년이다.

DL이앤씨는 다수의 수목원 시공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살려 자사 주택 브랜드



국립새만금수목원 조감도. 사진제공 DL이앤씨

인 ‘아크로’와 ‘e편한세상’에 조경특화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프리미엄 조정 브랜드인 ‘드포엠 파크(dePOEMPARK)’를 선보이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대형 수목원 시공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추가적인 수주를 이어갈 것”이라며 “주택 사업에서도 차별화한 조정 기술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무자격 외국변호사 활개”… 서울변회, 법무장관에 SOS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등록 외국변호사들의 법률사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국내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변호사 유사직역과 외국법자문사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시 법무부가 의견조치를 하는 등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야 한다. 미국변호사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법률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달 3일 기준 법무부에 국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된 이들은 총 237명에 불과하다.

서울변회, 박성재 장관 면담서
외국법자문사 변호사법 위반에
법무부 의견조치 등 협조 요청

국내 외국법자문사 등록 237명
무등록 외국변호사 수임사례에
유관기관 협력해 실효대책 촉구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은 법무부,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담당한다. 이들은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국가에 따라 ‘미국법자문사’, ‘중국법자문사’ 등 명칭을 사용한다. 현재까지 미국, 영국, 중국, 싱가포르법 자문사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변호사들도 여전하다고 한다. 현재 서울변회 변호



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에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행위,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신고를 받은 서울변회는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하지만, 시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조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것이 대부분이

고, 기소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쳐 규제의 실효성이 형해화됐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실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등 민·형사 소송을 수임,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대한변협이 공개한 변호사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미국변호사 문모 씨는 자신의 법무법인에 고용된 외국변호사들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에 ‘미국변호사’라고 소개해 외국법자문사법 등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미국변호사 황모 씨도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계약서 담당 변호사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업무용 이메일 전자서명란에 자신의 이름 뒤에 ‘Foreign(외국)’이 빠진 ‘Attorney at Law(변호사)’를 사용해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국내 대형 로펌을 보더라도 소개란은 제각각이다. ‘외국변호사’로 적혀있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래 ‘자격’ 부분에 미국 뉴욕주·메사추세츠주, 호주, 중국 등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명이 나온다. 단순히 미국뉴저지주변호사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변회는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법자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모용(허위 기재 사용)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마련해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법 위반 및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김이현 기자 spes@



4월 10일은 국회의원선거 투표하는 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사흘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 정문 앞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여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발암물질 범벅’ 알리·테무 장신구… “기준치 700배”

23.8% 제품서 카드뮴·납 검출
C-커머스 초저가 장신구 주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C-커머스) 플랫폼이 판매하는 장신구에서 국내 기준치의 70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초저가 물품 판매로 최근 국내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는 플랫폼인 만큼 해당 품목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인천본부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

와 테무에서 판매한 귀걸이, 반지, 목걸이, 헤어핀 등 장신구 404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23.8%에 해당하는 96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의 최소 10배부터 최대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 납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배송료를 포함해 600~4000원 사이의 초저가 상품이었으며 평균 금액은 2000원 정도였다.

플랫폼별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각각 48건의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품목별로는 귀걸이(47개), 반지(23개),

목걸이(10개), 발찌(8개) 순으로 많이 검출됐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중독될 경우 신장계나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도 요청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장신구를 구매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꽃 기자 pgot@

“휴강 마지노선에 수업 재개” ‘의대생 집단유급’ 우려 여전

1학기 수업일수 15주 확보해야
오늘 전북대·경북대 시작으로
가톨릭대·중앙대 등 수업재개
이주호 “공부하며 의견개진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의대들이 수업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개강 이후에도 수업거부가 이어질 경우 ‘집단 유급’ 사태가 가시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북대 의대는 8일부터 임상실습 등 실습 수업을 재개한다. 경북대 관계자는 “5명에서 6명으로 나눈 임상실습팀을 50개로 나눠 수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애초 15일 시작하려 했는데 중간에 휴일이 많아서 수업일수를 채우기 벅거울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도 8일부터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병행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의대생 665명 중 641명이 휴학을 신청하자 2월 26일부터 여러 차례 개강을 연기하거나 휴강하며 수업을 미뤘었다. 가톨릭대 등 서울권 일부 의대는 15일 이후 개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는 다음 달 1일부터 의대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 낙제점을 준다.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학점 처리되면 유급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결석이 유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피해를 막고자 대학들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난 2월 중순 이후부터 수업과 실습을 중단하거나 개강을 미뤘지만, 고등교육법상 1학기 수업일수를 15주 이상 확보해야 하는 만큼 더 이상 개강을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뉴시스

다만, 수업을 재개했는데도 오랜 기간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유급 처분된다. 이 경우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들과 올해 예과 1학년 학생들이 한 강의실에서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한 대학가 관계자는 “서울권 의대를 제외한 대다수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까지 겹치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난 가운데 의대생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의대생 중 55.2%(1만366명)가 휴학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대학가 관계자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줘야 될지와 관련해 대학들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 방문 등 의대생 설득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대전 충남대 보은캠퍼스를 찾아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의대생들은 학업에 임하면서 대학과 정부에 의견을 개진해줄지 바란다”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서울 기후동행카드 누적판매 100만장… 하루 50만명 이용

시행 70일… 서비스 확대 효과

7일 서울시는 무제한 교통이용권 ‘기후동행카드’가 시행 70일 만에 누적 판매 100만 장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5일 오후 4시 기준 기후동행카드의 누적 판매량은 100만8000여 장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카드는 49만3000장, 실물 카드는 51만5000장이 각각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후동행카드로 지하철, 버스를 이용하는 일일 사용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일 기준 하루 사용자가 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청년 할인, 김포폴드라인 적용 등의 서비스 확대가 새로운 사용자들이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달 말 신용·체크

카드까지 기후동행카드 충전수단을 확대하고, 상반기 중 서울대공원 등 문화·공원 시설 입장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7월에는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부가 혜택을 마련해 더 편리하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채빈 기자 chaebi@

행복이 오는
이런 집을 만드세요

국민이 바라는
집과 도시를 국민의 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이 바라는 생활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속 만들어 갑니다]

[임대주택 14만호 운영]

청년과 신혼부부, 은퇴자에게 든든한 내일

[아이 키우기 좋은 3기신도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긴급급주거지원 4만호]

쪽방,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계층

[희망의 시작 뉴홈]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등 나에게 맞는 집

30세 CIO의 투자전략은...“변화에 집중하라”

김성혁 더블유운용 CIO

국내 자산운용업계 최연소

작년 대리직급서 수직승진

최근 3년 누적수익률 78%

“주식시장은 생명체와 같아”

더블유자산운용은 국내 중소형 사모운용사 중에서 최적의 타이밍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전략을 잘 구사하기로 입소문이 났다. 하락장에서 주식 비중을 낮추면서 선물 헷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포착하는 전략이다. 반대로 주식이 오를 때는 주식 비중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수익을 극대화한다. 2019년 4월 설정된 더블유운용의 대표펀드인 'W1000 펀드'의 수익률은 현재 110% 선을 돌파했다.

W1000 펀드의 주식 수익률을 올린 주역은 1994년생인 김성혁 최고투자책임자(CIO·30세)다. 국내 자산운용업계 최연소 CIO인 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더블유운용의 대리 직급이었지만, 올해 초 수직 승진했다. 파격적인 인사의 배경은 검증된 운용 능력이다. 김 CIO의 3년 누적 수익률은 78%로 같은 기간 코스피(-



국내 자산운용업계 최연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오른 더블유자산운용의 김성혁 CIO. 그는 지난해 대리 직급에서 올해 초 파격적으로 수직 승진했다.

7%), 코스닥(-11%) 수익률을 크게 웃돈다.

그의 운용 철학은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다. 김 CIO는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체와 같으며, 게임의 규칙 역시 변할 수 있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어떤 변화가 지속해서 영향력을 미칠지를 빠르게 분별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는 것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 미팅을 꾸준히 진행하고,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좋은 기업들을 분석해 기술기가 가팔라지는 초기에 높은 비중을 투입한다.

그는 "물론 모든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시나리오를 면밀히 고려해 '변화의 기술기'가 큰 요소들에 주목한다. 대부분은 확률게임으로 귀결된다"며 "확률 예측과 이에 기반한 적정 투자 비용을 고려해 철저한 수익 극대화 와 리스크 관리를 수행한다"고 했다.

지난 2년간 국내 시장에서 가장 컸던 변화의 기술기는 '금리'를 꼽았다. 2022년 금리 인상은 그의 주식 경력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경험하면서, 경제 이벤트들이 예측을 벗어나는 쓴맛을 봐야 했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손실을 입었다. 김 CIO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하락 속도가 예상

을 뛰어넘었다. 이 시기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철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다.

국내 시장은 올해 '골디락스(경기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 흐름이 될 것으로 봤다.

올해 주목해야 할 변화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꼽았다. 그동안 주주환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진했던 주가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CIO는 "국내 시장의 낮은 주주환원율은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한 투자 쏠림 현상을 초래했다"며 "밸류업 도입을 통해 기업의 수익 창출과 주주의 이익 간의 불일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수혜 업종으로는 반도체, 금융, 자동차를 제시했다.

다만 밸류업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려면 배당소득세,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권익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정책적 노력을 통해 주주가치 회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글·사진 정회원 기자 hihello@

저커버그, 세계 부호 3위 올라

2020년 이후 첫 머스크 추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사진)가 2020년 이후 3년여 만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추월해 '세계 3위 부자' 자리를 차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커버그가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 순위에서 3위 안에 든 것은 2020년 11월 16일 자신의 자산이 1056억 달러, 머스크의 재산이 1021억 달러였던 이후 처음이다. 머스크의 순자산은 전날 미국 증시 종가 기준 1806억 달러(약 244조 원), 저커버그의 자산은 1869억 달러(약 253조 원)다.

머스크는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이제는 4위로 떨어졌다. 머스크는 2021년 11월 한때 저커버그보다 재산이 무려 2150억 달러 더 많았다. 이런 부의 격차가 역전된 것은 시장의 관심이 전기차에서 AI를 앞세운 대형 IT 기업들로 이동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세계 1위 부자와 2위는 각각 루이비통 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2234억 달러)과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2073억 달러)다.

이진영 기자 mint@



참가자 3000명 중 본선 진출 34개팀 99명

‘LG 에이머스 해커톤’ 인화원서 ‘AI 경연’

LG가 6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AI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들이 실전 역량을 쌓을 수 있는 ‘LG 에이머스(Aimers) 해커톤’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LG 에이머스’는 LG가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AI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에 시작한 청년 AI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날 LG인화원에 모인 본선 진출자는 34개 팀, 99명이다. 이들은 올해 상

반기 진행한 4기 참가자 3000명 중 ‘AI 전문가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해커톤 예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본선에 진출했다.

이번 해커톤 문제는 ‘잡재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선별하는 AI 모델 개발’이다. ‘LG 에이머스 해커톤’ 문제는 LG 계열사가 돌아가며 출제하고 있다. LG는 계열사가 보유한 산업 현장 실데이터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해커톤에 참가한



LG가 6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진행한 ‘LG 에이머스(Aimers) 해커톤’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LG

청년들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LG는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과 최우수상(LG AI연구원장상) 등 상위 수상

3개 팀이 입사를 지원하면 서류 전형은 면제한다. LG는 본선 참가자를 대상으로 7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도 열었다. 송영록 기자 syr@



박지원(오른쪽) 두산그룹 부회장과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회장이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IBM 본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두산그룹

박지원 두산 부회장, IBM 본사서 크리슈나 회장 만나 퀀텀컴퓨팅 등 디지털 비즈니스 협력 논의

두산이 글로벌 테크놀로지 선도 기업인 IBM과 손잡고 디지털 비즈니스를 강화한다.

두산그룹은 4일(현지시간) 박지원 부회장과 디지털 비즈니스 관련 경영진이 미국 뉴욕시에 있는 IBM 본사를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아르빈드 크리슈나 회장, 립 토마스 수석부회장 등 IBM 주요

경영진과 디지털 솔루션 및 ESG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사 경영진은 협업 중인 프로젝트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다양한 미래기술 트렌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산 경영진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기술 현황을 살피기 위해 IBM 퀀텀컴퓨팅 연구소를 둘러봤

다. 두산은 앞으로 다가올 퀀텀컴퓨팅 시대에 대비해 2022년부터 퀀텀컴퓨팅 도입 전략을 수립했다.

박 부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려면 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선제적으로 현장에 도입하고 프로세스를 효율화해야 한다”며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IBM과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그룹 비즈니스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SK네트웍스, 식목일 맞아 무궁화 묘목 심고 환경정화

SK네트웍스가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시행했다.

7일 SK네트웍스는 이호정 대표이사와 구성원 20여 명이 5일 서울 남산공원을 찾아 무궁화 묘목 200그루를 심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 및 자회사 민트 임직원 40여 명은 서울 여의샹강생태공원에서 곤충 등의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한 ‘에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동욱 기자 toto@



이호정(가운데) SK네트웍스 대표이사가 5일 식목일을 맞아 남산공원에서 무궁화 묘목 식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네트웍스

풀무원아카데미, 국유지 식목행사

풀무원 연수원 풀무원아카데미는 제 79회 식목일을 기념해 중부지방산림청과 함께 5일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소재 국유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식목 행사에는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 김종룡 충주국유림관리소장, 주진희 건국대학교 교수, 오경석 풀무원 지속가능경영실장, 유찬일 풀무원아카데미 센



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산림청 산하 직원, 건국대 글로벌캠퍼스(충주) 녹색기술융합학과 학생, 풀무원아카데미 임직원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지영 기자 kjy42@·사진제공 풀무원

인재육 칼럼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자유기업원 이사장

‘정부가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면 모두가 돈 걱정 없이 잘살 텐데’라고 생각했다. 경제가 무엇인지 모르던 초등학교때였다. 그런데 요즘엔 초등학교때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그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가구당 100만 원씩서 동네 장 보게 하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소고기 사 먹고 좋잖아요”라고 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는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서 알았다.

소비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원리다. 내가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팔고, 거기서 얻은 소득으로 다른 사람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해 소비한다. 그리고

소비하고 남은 일부를 저축한다. 이 교환 과정에서 돈(화폐)이 오고 간다. 돈이 오고 가지만 실질적으로 교환되는 것은 내가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와 다른 사람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다. 돈은 우리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 자체가 부를 창출하지 않는다. 우리가 더 잘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부를 창출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축한 돈으로 도구와 기계와 같은 자본재를 구매한다. 자본재가 있어야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재래식 톱보다는 전기톱을 사용할 때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짧은 시간에 벌 수 있고, 땅을 팔 때도 삽 대신 굴삭기를 사용하면 짧은 시간 내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저축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즉 경제를 성장게 하고 우리를 잘살게 하는 원천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저축이 감소하면 경제가 쇠퇴하고 우리의 삶은 피폐해진다.

정부가 돈을 풀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축의 가치가 훼손돼 사람들이 못살게 된다. 모든 사람의 생산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정부가 돈을 풀면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소비가 발생한다. 동일한 양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구매하려는 돈의 양이 많아진다. 그로 인해 자본재를 포함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축으로 예전에 살 수 있었던 자본재를 살 수 없게 된다. 자본재 사용이 줄게 됨에 따라 생산이 감소해 경제는 쇠퇴하고 국민의 삶은 나빠진다.

생산없는 소비, 가격상승 유발하고 투자줄어 경제쇠퇴·삶의 질 나빠져 경제자유 높아야 생산활동도 활발 항당한 ‘國富 파괴 공약’ 안타까워

더욱이 정부가 돈을 풀면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구조를 왜곡시켜 자본재 생산이 줄어 경제 성장에 치명적인 해를 가한다. 정부가 풀 돈이 소비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소비재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소비재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생산요소들이 자본재 산업에서 소비재 산업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자본재 산업의 위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새롭고 개선된 자본재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롭고 개선된 자본재가 생산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더 좋은 재화와 서비스가 더 생산되지 않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사실 이 경제이론의 바탕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50년 전 애덤 스미스는 이미 ‘국부론’에서 “화폐는 중요한 유통수단이자 상거래 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부를 창출하지 않고, 국부의 본질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있다”라고 했다. 재화와 서비스가 증가해야 경제가 성장하며 국부가 증가해 국민이 잘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경제적 자유라고 했다. 국민이 정말 잘살기를 바란다면 돈을 풀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제이론을 잘 몰라도 좋다. 단지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자. 정부가 돈을 풀어서 잘산다면 이 지구상에 가난한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 오히려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려고 했던 국가 중 잘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그리스 등이 그런 나라다.

‘25만 원 지급’은 우리의 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약을 버젓이 제안하는 우리의 이 현실이 참 안타깝다.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 커지는 美

미국 노동부가 지난 5일 발표한 3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 고용건수는 예상치를 크게 웃돈 30만 건에 달했고, 실업률도 소폭 떨어졌다. 애초 3월 FOMC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기존에 예고했던 연내 3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그대로 유지했다. 1~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 외로 높게 발표되었기에,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바뀔 것이라는 시장 예상이 있었지만, 연준 파월 의장은 단기기간의 인플레이션 지표 반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며 이런 불안감을 불식시켰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고착화 혹은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임금 등 서비스물가 항목이 발목 잡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6월 9.1%로 40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빠르게 안정되었고, 2023년 6월 3.0%까지 하락했다. 거의 2개월에 1%씩 하락한 셈인데, 그 추세를 이어간다면 2023년 4분기에는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진입이 가능할 것처럼 보여졌다. 그러나 이후 소비자물가지수는 반등과 소폭 하락을 반복하면서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3%대에 머물러있다. 2% 물가 목표까지 마지막 1마일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다.

단순히 인플레이션 수치가 더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접근할 때 연준은 상품, 주거, 서비스 물가의 세 가지를 나누어 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높아졌던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상품 물가는 안정되었고, 2023년 1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은 상품 물가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고 발언했다. 당시 파월 의장은 주거비 물가는 여전히 높지만 시차를 두고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를 잡아내리는 것이 관건임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2023년 1월 이후 1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의 주거비 물가는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미국의 주택 가격의 상승세를 만들어내면서,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주택 시장이 계속해서 열

시론

오 건 영

신한은행 WM 사업부 팀장



기를 이어간다면 주거비 물가의 안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큰 이슈는 서비스 물가인데, 서비스 물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임금에 차지한다.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된다. 지난 해보다는 일정 수준 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노동 시장은 뜨겁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임금 상승률이 쉽게 약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 물가의 안정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임금 상승과 최근 나타난 자산 가격의 급등에 힘입어 미국 가계 소비는 여전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강한 소비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어짐을 의미하며, 이런 강한 소비하에서는 물가의 빠른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연준의 물가관리 능력 시험대 올라

쉽게 낮아지지 않는 물가 레벨과 항목별로 분류해보았을 때 끈적해 보이는 서비스 물가 항목을 통해 인플레이션 해결의 마지막 1마일이 쉽지 않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일 뿐 물가는 2%로 안정될 것이라는 낙관이 여전히 강하다. 꽤 긴 시간을 두고 2%로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는 유효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졌을 때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다. 감기를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환자가 기침 감기를 3년간 앓고 있다면 어떻게? 충분히 고질병, 즉 감기의 고착화를 의심해볼 수 있다. 그리고 고질병은 쉽사리 치료가 되지 않고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서는 것은 2021년 3월이었다. 정확하게 3년 전인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지 못한 채 인플레이션이라는 감기를 앓고 있다. 너무 긴 기간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강화되며 고착화될 수 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여전히 방심하면 안되는 이유이다.

조건없는 ‘의정만남’이 돌파구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2월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의 끝은 어디쯤일까?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운 지 7주차가 넘었다.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대 교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며 주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의료현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이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오히려 대한민국의 의료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사들 간 힘겨루기는 의대 정원 발표 전부터 예견됐다. 이들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건 이들밖에 없다. 양쪽 모두 과학적 근거를 내세워 소통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정작 대화의 장은 쉽사리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4일 극적으로 대통령과 전공의의 만남이 있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면담 이후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남에 나섰던 전공의는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

노트북 너머

노 상 우

헬스케어부 기자



는 글을 올렸다. 견해차만 확인했다.

4·10 총선을 기점으로 의정 갈등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권도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해내지 못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밝히 갈등의 끈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와 의사들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생각한다면 의정 모두 형식적인 대화가 아닌 구체적 타협안을 제시하며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출구 없는 상황에 기약 없이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만 목매는 상황이다. 환자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정부의 책임이다. 강대강 대치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 되고 있다. 국민 건강을 뒤로한 힘겨루기를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할 때다. nswreal@

이투데이, 말투데이

☆ 에드문트 후설 명언

“우리의 의식은 항상 어떤 무엇을 향해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대상 역시 의식을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대상으로 다룰 수 없다.”

독일 철학자. 그는 우리가 직접 지각하는 내적 세계에 대상을 환원하는 현상학의 창시자다. 외부세계를 괄호 속에 묶고, 의식에 충실함으로써 올바른 지 않은 존재론적 주장을 피할 수 있다고 본 그의 철학은 주관적이라고 해서 당대에는 비판을 받았지만, 후대 현상학적 사회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 늘은 그가 출생한 날. 1859~1938.

☆ 고사성어 / 축물의이(逐物意移)

‘외물에 동요되어 이끌려가고 뜻이 그것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도(道)를 능히 지키지 못한다’는 말이

다. 천자문(千字文)에 나온다. “성품의도(道)를 지키면 의지가 충만해지고, 욕망의 외물(外物)을 좇으면 뜻이 옮겨간다[守眞志滿 逐物意移].” 즉 마음 이 참된 것을 좇지 않고, 참된 마음 밖의 욕망을 좇게 되어 뜻이 저절로 그 욕망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 시사상식 / 복수의결권

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밑으로 하락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살만한 곳 못 만드는 막말정치

“자고로 사람 사는 곳은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십수 년 전 어느 날 A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네 팔로 떠나 히말라야 자락 어딘가에 터를 잡겠다고 했다고 한다. 누군가는 현실도피라고 타박하고 누군가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도 필요하다고 위로했다. A가 떠난 이유는 알 수 없다.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일 수도, 직장문제일 수도 있다. 흑(黑)이 아니면 백(白)이어야 하고, 시(是)가 아니면 모두 비(非)가 되는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에 치였으면 그랬을까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눈 뜨고도 코 베이는 각박한 세상이니 염증이 날 만도하다. 그러니 속세(?)를 떠나 홀로 사는 TV 속 ‘자연인’을 명대리며 동경하게 되지 않던가.

과연 우리 사회는 사람 살 만한 곳인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자연인이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람과 부대끼며 살기 힘들어졌다는 방증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는 이를 간명하게 증명한다. 지난해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82.9%) 갈등을 가장 크게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층과 중상층’(76.1%), ‘근로자와 고용주’(68.9%), ‘개발과 보존’(61.4%) 갈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다른 유형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유독 ‘보수-진보’ 갈등 인식률은 전년보다 0.3%포인트(p) 올랐다. 또 보수-진보 갈등이 가장 크다는 인식은 전 연령층에 걸쳐 가장 높았다.

이같은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은 갈등 유발자가 된 지 오래다. 사람 살 만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번 총선에 나온 인물은 비례후보를 포함해 947명에 달한다. 1000명에 가까운 인물들이 저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진정 나라와 지역구의 미래, 주민의 더 나은 삶을 고민하는 후보자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남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살아남는다고 믿는 선거판의 속성 때문일까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정치

데스크 서약

김 동 선
사회경제부장



권의 아귀다툼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진영 간 막말 공방은 치열하기까지 하다. 모범을 보여야 할 거대 양당의 선거 책임자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씨름은 정치를 더욱 회화화할 뿐이다. 지역 현안과 정책 이슈를 두고 토론을 해도 모자랄 판에 대파와 삼푸를 두고 합난을 주고 받는 것이 과연 책임 정당의 대표의 도리인가 싶다. 잘못된 말과 행동이 있거든 여차여차 해서 어긋났다고 사과하면 그만인 것을 구차한 변명과 빈약한 방어 논리를 만들어내니 역겨운 막말만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거대 양당이 발표한 공약은 국민 삶과 직결된다. 당장 총선 후엔 양당이 내놓은 공약 청구서가 날아온다. 민주당의 ‘민생 회복지원금’에 약 13조 원, 국민의힘의 무상교육·보육에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밖에 공약을 하나둘 반영하다 보면 나라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도 3년 연속 지키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만 그 자체로 피로한 사회를 만들고 고스란히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친다. 정작 출연히 떠나야 할 사람은 A와 같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판에 기생하는 유사 정치인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게 선거라지만 정치(政治)를 위장한 협잡꾼의 난립에 옥석 가리기도 쉽지 않다.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이라도 골라야 하는 선거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용과 피로도를 낮추려면 투표해야 한다. matthew@

보수·진보갈등, 빈부갈등보다 더 커진영간 막말공방으로 정치 회화화 그래도 ‘사회피로’ 낮추려면 투표뿐

노무, 특!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당사자 간의 법률다툼과 관련하여 분쟁 전 또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법률적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쌍방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노동분쟁사건의 경우에 더욱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이때 일방이 변심을 하여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합의를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 ‘부제소 특약’이라고도 부르는 이 합의를 한 이후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각하’와 ‘기각’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기각’은 소송을 제기한 절차가 적법하지만 그 내용이 실제적인 이유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각하’는 소송이 갖춰야 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바로 종료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듯, 부제소 합의를 작성한다는 것은 합의 당사자로 하여금 현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박탈시키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판례는 부제소 합의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즉, 특정한 사안에 대한 합의는 가능하나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합의 또는 당사자가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합의, 합의 과정에서 사기 및 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노동분쟁을 억제하는 적절한 부제소 합의의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부제소 조항에 어떠한 명목과 목적으로 합의금이 지급되는지, 그를 통해 실제법상의 어떠한 의무를 면하려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근로자는 부제소 합의를 체결하여 얻는 이익에 비하여 권리가 과도하게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깊게 판단해 합의를 검토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사설

“달 등근 게 손가락 탔”이라는 항변, 일리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연루된 ‘작업대출’ 의혹이 일파만파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120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양 후보 자녀에게 대출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 53건 중 40건가량의 용도 외 유용도 확인됐다고 한다. 작업대출은 금융 신뢰를 파괴하는 반칙이다. 통상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자영업자)로 둔갑시켜 주택대출을 받게 하거나, 대출모집인이 무직자나 신용불량자에게 접근해 서류 조작을 통해 대출을 일으키기도 한다. 양 후보 자녀처럼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냈다면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주택대출을 욕망의 하수구로 변질시킨 주역은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피할 우회로로 사업자 대출이란 통로를 찾아낸 전문 브로커들이다. 자영업자들은 대개 부동산 담보 말고는 운영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기에 아파트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안배다. 하지만 브로커들이 이 안배를 제도상의 허점으로 만들었다. 지금도 사업자 주택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광고가 넘쳐난다. 작업대출은 오늘도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회 지도층마저 불법 통로를 이용하고 “나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외려 눈을 부릅뜨는 현실이다. 이런 적반하장 없다. 대다수 서민은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집

한 칸 장만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짬짜미’를 통해 거액을 대출받아 집을 사고 부동산 폭등기에 치부를 한다. 금융기관은 서류에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다.

작업대출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더불어 사회적 질환으로 자리 잡았다. 5개 대형 저축은행이 서류조작 등을 통해 2022년 1조 2000억 원을 부당 취급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지난해 무더기 중징계를 받은 일도 있다. 금융감독원 등의 상시 감시를 받는 저축은행이 이렇다면 감시망 밖에 있던 새마을금고는 어떻겠나. 작업대출은 한편으론 부당한 ‘특혜’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론 경영부실을 부르게 마련이다. 자본구조가 취약한 개별 금고엔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차제에 작업대출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명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양 후보의 의혹 파문과 관련해 “보름달이 등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민주당이 ‘관권 선거’라며 금감원을 공격하자 “금감원 검사 역량으로 딱 2~3일 정도면 충분히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반격을 가한 것이다. 원내 다수당과 금감원이 선거 국면에 공방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할 순 없지만 이 원장의 항변은 일리가 있다. 보름달이 등근 것은 손가락 탔이 아니다. 민주당은 견지망월(見指忘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달을 봐야 할 국면에 손가락만 봐서야 되겠나.

‘파묘’의 역설 ‘트라우마 거리두기’

얼마 전, 고전을 겪고 있던 한국 영화계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영화 ‘파묘’의 누적 관객 수가 천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분명, 땅속에 파묻힌 무시무시한 존재, 그리고 그에 맞서 싸우는 신비롭고 매력 넘치는 캐릭터들은 한국의 관객들이 목말라하던 순수한 재미를 충족시킨다. 하지만, 순전히 재미만을 선사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영화를 보러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영화는 다양한 상징과 코드를 통해 우리의 걸 의식, 그리고 거기서 한꺼풀 벗겨낸 속 의식에 잠자고 있던 공포와 트라우마를 상기시킨다.

일본에 대한 ‘악마화’와 ‘낭만화’ 이중성

한편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상징과 서사는 일제 강점기가 남긴 트라우마와 함께 살아나가는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한 알레고리를 형성한다. 해방된 지 80년 가까이 되지만 그때 그 시절이 남긴 상처들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채 흐려지고만 있다. 땅속 깊숙이 박힌 쇠 말뚝처럼 말이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교과서나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만 일제 강점기에 대해 배웠다. 그렇다 보니 일본이라는 나라는 젊은이들에게 지나치게 ‘악마화’되기도, 때로는 지나치게 ‘낭만화’되기도 한다. 일본산 제품을 불매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 강점기의 서울을 테마로 한 식당이나 주점이 유행하기도 하니 말이다. 이런 양가적이고 극단적인 감정이 공존하는 이유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일제 강점기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우리에게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악마화’와 ‘낭만화’ 모두 트라우마의 전형적인 방어기제이다. 몸에 상처가 생겼을 때 저절로 아물 듯이, 인간의 정신 또한 외상을 입었을 때 이를 빨리 극복하고 스스로의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외상을 입힌 존재를 불가항력적으로 강하거나 악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이로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 합리화되기 때문이다. 자

전문기자의 눈

김 성 희
전문위원·언론학박사



신의 경험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자 하는 사고과정은 인간의 생존 본능과 같다.

반대로 트라우마를 입힌 존재를 미화하거나 탐닉하기도 한다. 그러면 트라우마를 준 사건을 부정적인 경험이나,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지속적인 성 학대를 받은 이들이 가해자의 행위를 사랑이나 보호로 정당화하는 아이러니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일부 정신의학자들은 이런 사고 과정을 트라우마 치유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라 보고 치료에 적극 이용하기도 한다.

자존감 회복해 합리적 한일관계 만들길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악마화’, ‘낭만화’ 모두 실체와 동떨어진 ‘망각’이라는 것이다. 이 망각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얻을 수 있는 성장을 저해하며 한 사람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 여기서 이뤄져야 하는 치유의 다음 단계는 ‘거리두기’이다. 트라우마의 경험, 주제, 그리고 상처 입은 자신에게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법이다. 이래야만 궁극적으로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에게도 일본과 일제 강점기에 대한 이러한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충격요법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그 시절의 조선도 일본제국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전보다 훨씬 강성해진 대한민국과 예전보다는 못한 일본이 있을 뿐이다. 이런 건강한 자존감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지구촌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과 합리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귀중한 미래 세대가 더 이상 500년 전의 도깨비 망령으로부터 쫓기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IBK기업은행

글로벌 금융전문지 선정
대한민국 중소기업금융 최우수 은행 賞 3관왕 수상

ASIAMONEY
Best Bank For SMEs South Korea
아시아머니 선정, 중소기업을 위한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Global Finance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The Asian Banker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아시아뱅크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세계,
IBK기업은행에
집중하다

변화를 이끄는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